

원기 90년 교화연구소 정기연구발표

2030 세대를 위한 교화 전략

일시 : 원기 90년 5월 26일(목) 오후 2시

장소 : 법은관 대회의실

주관 : 원불교 교화연구소

원 불 교

2030 세대를 위한 교화 전략

■ 주제발표: 2030 · 네트워크 세대에 대한 이해와 교화

발표 : 박경석 | 교도 · 화정교당

■ 발표1 : 2030 · 네트워크 세대에 대한 비전 만들기

발표 : 이도하 | 교무 · 애니메이션연구개척

토론 : 문은식 | 교무 · 전주교당

■ 발표2 : 교화,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 대학생 중심)

발표 : 송정현 | 교무 · 나운교당

토론 : 김제원 | 교무 · 안암교당

■ 발표3 : 2030 세대의 코드, 가정 (가족 · 부부 프로그램 중심)

발표 : 길도훈 | 교무 · 성주훈련원

토론 : 박법일 | 교무 ·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진행 순서

사회 : 양영인 교무

1. 개 식

2. 입 정

3. 설명기도

4. 법어봉독

5. 격려사

6. 발표 및 토론

■ 주제발표: 2030 · 네트워크 세대에 대한 이해와 교화
발표 : 박경석 | 교도 · 화정교당

■ 발표1 : 2030 · 네트워크 세대에 대한 비전 만들기
발표 : 이도하 | 교무 · 애니메이션연구개척
토론 : 문은식 | 교무 · 전주교당

■ 발표2 : 교화,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 대학생 중심)
발표 : 송정현 | 교무 · 나운교당
토론 : 김제원 | 교무 · 안암교당

■ 발표3 : 2030 세대의 코드, 가정 (가족 · 부부 프로그램 중심)
발표 : 길도훈 | 교무 · 성주훈련원
토론 : 박법일 | 교무 · 원불교대학원대학교

7. 질의 및 종합토론

8. 종합정리

9. 폐 식

네트워크 세대에 대한 이해와 교화

박 경 석 | 교도 · 화정교당

우리는 변화의 시기를 살고 있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과거 몇 수십 년간의 변화를 뛰어넘는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개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대산중사님께서서는 이러한 개혁시대에는 과거의 묵은 법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법이 필요하다 하셨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것이다. 세간의 흐름과 인심은 이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내용은 단순히 기술이나 물질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세상의 윤리, 도덕에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무장한 네트워크 세대들은 과거와 달리 자유롭게 정보의 세계를 넘나들며 세상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온라인에 올려놓고 자신만의 세상들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까지 적극적인 개입을 하면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이들은 과거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반미구호나 동성애 문제 등 사회적 금기조차 간단히 넘나들기도 한다. ‘네트워크의 아이들’은 이제 단순히 나이 어린 아이들이 아니다. 무시할 수 없는 사회의 주체가 되어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우리 교단이 과연 이들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갈수록 교당은 비어가고 있고 출가자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교단에 대한 사회적 요청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지만 이를 이끌어 갈 인재는 부족하다. 물론 경제가 발전하면서 종교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추세라 할 수 있지만 우리 교단의 경우는 타 종단에 비해 더욱 더 그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자명하다. 소위 ‘네트워크 세대’라 부르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주체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들이 소통하는 방법과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형태 그리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지향이 무엇인지를 정교하게 알아야만 한다.

개혁시대의 새로운 법은 과거 묵은 시대의 윤리와 도덕이 아니다. 어느 순간 우리 교단은 새로운 시대를 향도할 참신성과 역동성을 잃고 말았다. 대중사께서 세상의 인심에 앞서 선진적인 새 도덕의 내용을 밝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한 여름에 낡은 겨울 외투를 걸치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음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만 한다.

이 글은 개혁의 시대에 시민사회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고 그 흐름을 이끌고 있는 네트워크 세대¹⁾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우리 교단의 교화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쓰여 졌다.

1) 과거 기성세대에 대해 새로운 특성을 가진 젊은 세대를 X세대, 혹은 N세대, 386세대 등으로 불려왔다. 네트워크 세대라는 개념은 인터넷과 휴대폰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네트워크 상에서 다양한 의사소통과 공동체 활동을 하며 이를 현실의 오프라인 공간으로 그 영역을 넓혀 움직이는 참여적이고 소통적인 세대를 말한다. 과거의 세대개념이 소비주체 혹은 자기만의 개성을 중시하거나 80년대에 대학 생활을 하였던 특별한 시대의식을 가진 세대 등을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네트워크 세대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공론을 만들어 내고,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면서 적극적으로 참여와 소통을 하는 좀 더 넓은

네트워크 세대의 출현

참여와 열정의 새로운 주체

지난 2002년 월드컵과 촛불시위는 우리 사회에 네트워크 세대가 출현했음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전에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월드컵 4강 진출의 신화는 단지 선수들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붉은악마’라 불리는 일단의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매개로 후원을 하고 길거리응원을 이끌어내면서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냈으므로 가능했던 일이다.

대다수 한국인들은 월드컵 4강 진출을 통해 그동안 억눌려 왔던 사회의 에너지를 붉은악마의 응원으로 강력하게 표출하였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매 경기마다 길거리 응원을 조직하고 만들어 내었다. 이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 존재인가를 자각하였다.

그동안 동원과 계몽의 대상으로 위치 지어졌던 이들은 이후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사회 변화의 강력한 주체로 떠오를 수 있었다. 주한미군의 범죄는 이전부터 한국사회에서 수없이 문제시 되었지만 한번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그것은 과거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질서에 길들여져 있었던 기성세대의 경험적이고 인식적인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네트워크 세대들은 그러한 억압과 권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들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기성의 질서 뿐 아니라 비상식적이고 불균형한 한미관계에도 가차 없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었다. 이들의 분노는 마침내 촛불시위를 통해 불꽃처럼 폭발하였다.

그 시작은 인터넷에서 이루어졌다. 두 여중생을 살해한 두 미군이 무죄판결을 받자 만화가 강도영(28)씨가 11월21일 새벽 5시53분 자신의 홈페이지(www.kangfull.com)에 올린 작품, <미선아... 효순아...>는 바로 이 거센 '반미열풍'의 한 기폭제로 작용했다.

강도영의 홈페이지를 통해 불과 일주일 만에 3만2천명에 육박하는 네티즌들이 이 만화를 봤다. 뿐만 아니라 '급속한 전파력'이라는 인터넷의 특징상 <미선아... 효순아...>는 각종 시민단체와 진보 성향의 사이트로 무한복제 됐고, 이미 수십·수백만의 네티즌들이 이 만화를 읽으며 약소국 시민의 설움을 참지 못하고 눈물짓거나, 성난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이들의 분노는 마침내 ‘악마’라는 아이디어를 가진 한 네티즌의 제안으로 자연스럽게 촛불시위로 터져 나왔다. 어느 누구도 사전에 합의한 적도 없고 어떤 단체도 사전에 준비한 바 없지만 촛불시위는 마른 나무에 불이 붙듯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결국 촛불시위는 전례가 없는 미국의 공식 사과를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해방 후 한번도 대외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어보지 못했던 한국인들은 이를 통해 스스로 자존의식, 자주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네트워크 세대들은 자신들의 에너지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새삼 자각하였다. 이들은 그 해말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한번 네트워크의 힘을 통해 새로운 노무현 정부의 탄생을 만들어 냈으므로 스스로 강력한 사회 변화의 주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세대라는 개념은 단지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라는 의미 뿐 아니라 네트워크를 매개로 소통과 참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보다 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기년과는 차별이 된다.

전문가와 비전문가 경계의 소멸

이어 2003년 총선 국면에서 벽두부터 터져 나온 ‘정치인 살생부 사건’은 네트워크 세대가 단지 무리를 지어 ‘영향력의 정치’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높은 수준의 소통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과거 사회의 여론을 만들어 내는 계층은 따로 있었다. 소위 ‘오피니언 리더’라고 불리우는 정치인, 종교인, 교수, 시민운동 지도자 등의 고급 지식인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하지만 살생부 사건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영역이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였다.

당시 인기 있었던 ‘여인천하’라는 한 역사 드라마에서 등장했던 살생부는 급기야 당시 현실 정치인들을 풍자하며 새로운 ‘정치인 살생부’를 만들어 내었고, 이는 인터넷을 통해 급속한 전파가 되면서 세간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한 보수성향의 일간지는 이 살생부는 당시 집권 여당 내에서 의도적으로 야당 정치인들을 흠집내기 위해 만들어낸 자작극이라며 살생부를 작성한 자는 틀림없이 여당의 고위공직자 일 것이라고 예측기사를 내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게시판의 아이피 추적을 통해 살생부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해 본 결과 평범한 네티즌임이 밝혀졌다. 그는 대학조차 진학하지 못한 한 철공소의 용접공이었던 것이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정치인 한명 한명의 과거 행적을 찾아내어 부정부패 사실이나 비도덕적인 행태 등을 폭로하였다.

결국 인터넷의 급격한 성장과 네트워크를 통한 우리 사회의 변화는 과거 전문가들만 독점했던 고급 정보조차 공유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게 되었다.

네트워크 세대는 인터넷을 통한 공론장을 쉽게 만들고 참여한다. 그들은 메신저와 이메일, 게시판 등을 통해 소통하며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싸이 등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 내고 수없는 링크와 폼질을 통해 정보를 유통시킨다.

그러한 소통과 대화의 공간에서 소위 유명 지식인이나 명망가는 별 힘을 얻지 못한다. 그들에게 유일한 사회적 영향력은 얼마나 많은 클릭과 댓글, 그리고 폼이 이루어지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 공간에서는 그 글을 쓴 이가 어느 대학 출신이고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순간순간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구성력과 해석력 그리고 정보의 질이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 소위 ‘사이버 폐인’이 아니라 ‘인터넷 논객’이니 하는 이들이 생겨난다.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이름보다는 아이디가 더욱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유명한 논객들의 아이디는 수천 수만 명의 클릭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사회에 전파된다. 결국 네트워크 공간은 철저하게 지지본위가 실현되는 공간이 되어 버렸다.

영리한 군중들

지난 2001년, 필리핀의 대통령이던 조셉 에스트라다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 의해 권력을 잃은 사상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장본인들은 총을 든 군인들이 아니라 오직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로 서로 소통하던 마닐라의

‘영리한 군중들’이었다. 최초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지 한 시간 만에 수만 명의 필리핀인들이 ‘에드사’ 거리로 몰려나오기 시작하였다.

앞서 지적했듯이 2002년 한국에서는 미군장갑차에 희생된 두 여중생을 추모하는 촛불시위가 광화문을 뜨겁게 달구었다. 한 네티즌의 제안으로 시작된 촛불시위는 일주일 만에 십만 명, 한 달 후에는 백만이 넘는 군중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한미간의 외교관계와 대통령 선거에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영리한 군중(Smart Mobs)들은 인터넷과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무장하고 다양한 시민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들은 동원과 계몽의 대상이었던 일반 시민들이 참여와 네트워킹을 통해 새롭게 정치적 주체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시민운동 조직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조직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회원들에게 시민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려하기 보다는 동원의 대상, 교육과 훈련의 대상으로만 여겨왔다. 그들은 중앙으로 힘을 모아 거대한 연대의 힘으로 모든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풀려고 하였다. 그 결과 시민사회는 회원의 이탈, 시민적 의제에 대한 무관심, 조직의 쇠퇴, 활동력의 약화 등을 겪으며 계속 추락하였다.

최근 시민단체들 사이에는 주요단체의 사무총장으로 30대, 40대의 젊은 활동가들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그들은 조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보다 지역조직에 더욱 더 힘을 실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비대해진 조직을 재편하여 작은 소규모 자립적 조직으로 분산, 독립시키려 하는 등 그간의 운동방식을 새롭게 펼쳐나가려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들은 그동안 백화점식 운동방식으로 전개되어온 중앙 집중적인 운동양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반증이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스스로 조직하고 움직이는 영리한 군중, 영리한 시민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더 이상 시민단체들의 지도력과 동원력에 기대려 하기 보다는 스스로 조직과 이슈를 만들어 내며 새로운 시민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 역시 명망가 중심의 중앙집중적인 조직방식으로는 이러한 흐름을 맞추어 갈 수 없음을 깨닫고 다양한 형태의 군살빼기와 전문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1일, 우리는 엄숙하고 경건하게 지켜왔던 삼일절 기념행사가 영리한 군중들에 의해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벤트로 변화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들은 스스로 다양한 형태의 축제와 어울림을 기획하여 태극기를 들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면서 삼일절 만세운동의 의미를 새기고 즐겁게 행사의 의미를 만끽하였다. 수동적으로 동원되기 보다는 스스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즐거움을 누리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힘과 열정이 넘치며, 전문가 이상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영리한 군중들이 만들어 내는 시민사회의 새로운 문화이며 창조성이다.

대중사님께서 전망하셨듯이 지금의 세상은 인지가 크게 발달하고 크게 소통되는 세상이다. 따라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권력과 위세에 의지하여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없다. 그들에게는 억압적인 힘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앞으로 영리한 군중들은 종교의 모습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그들은 열 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으라는 솔성요론은 차치하고라도 많은 종교를 접해보면서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법을 찾으려 할 것이다. 또한 영리한 군중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사회적 명망이나 신분이 아니라 사회적 지식정보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실용적인 요구일 뿐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변화는 그동안 교화의 대상으로 분리되어 있던 일반 교도들에게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며 소통하는 영리한 군중이 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출가교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소통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집중하고 힘을 모은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지는 않는 세상이다. 오히려 큰 덩치와 비대한 조직으로는 시시각각 변화해가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끌어갈 수 없다. 우리 교단에도 영리한 교도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아(大我)에서 무아(無我)로

우리 사회에는 짧은 시간동안 많은 변화가 진행 되었다. 그 중 큰 변화는 경제발전을 통한 물질적인 변화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 즉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신’ 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근대사회에 들어서서 그 중심은 ‘국가’ 로 대체되었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은 모두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불과 십여 년 전까지도 우리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적 이익이나 권리는 당연히 제한될 수 있다고 믿었다. 국가가 명령을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인식의 틀이 다시 변하고 있다. 국가를 대신해서 시민사회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시민사회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다. 시민은 국민과는 다른 개념이다. 국민이 국가의 틀 속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민은 공공영역의 틀 속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은 발생적으로 ‘부여’ 되는 존재이지만 시민은 의지적으로 ‘구성’ 되는 존재이다.

의지적이라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신념과 뜻을 따라 ‘자율적’ 으로 행동한다는 의미이다.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세상을 균형적으로 밝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뜻도 존중할 수 있는 관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성된다는 것은 후천적으로 계발되고 훈련된다는 의미이다. 시민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참여’ 와 ‘훈련’ 이 필요하다. 일정한 나이가 되어 투표권이 생겼다 해서 아무나 시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민’ 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공간에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존재인 ‘대중’ 과는 확연히 다른 개념이다. 시민들은 사회문제에 대해 ‘공론장’ 을 구성하고 논쟁에 참여하며 일상적인 삶 속에 작동하는 사회, 정치의 문제점들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한다. 시민사회는 그러한 시민적 참여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중심이 시민사회로 이동하고 있다고 해서 ‘시민’ 을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로 볼 수는 없다. 개인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의지가 맹목적으로 존중될 수는 없다. 참여와 훈련도 무조건 실천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시민사회는 심인(心印)사회가 되어야 한다. 모두가 각자의 마음에 진리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 마음도장은 우리가 공중사에 있어 사(私)없는 마음으로 공정하게 처신할 때 나타난다. 진리의 인장은 곧 내 마음을 따라 밝게 드러난다. 그 누구도 자신만은 속일 수 없다.

시민은 국가가 아닌 큰 개인을 드러내는 사회발전 모델이다. 심인은 무아(無我)에 바탕하여 봉공을 하는 차원 높은 사회윤리이다. 시민사회는 곧 큰 나를 드러내는 사회이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하는 사회는 ‘나를 무화(無化) 시키는 세상’ , 곧 무아봉공의 세상인 것이다. 시민사회를 넘어 일원주의에 바탕한 ‘심인사회’ 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상

(相)없는 공도인이 되어야 한다. 구인선진의 백지혈인은 사무여한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선진님들의 정신을 살려 ‘심인’의 사회윤리를 새롭게 발전시키고 우리의 교화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사요의 사회윤리는 곧 우리 사회가 시민사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심인사회로 가도록 하는 차원 높은 사회윤리이다.

교화(敎化)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인식의 전환

앞에서 우리는 네트워크 세대의 특성을 참여와 소통의 새로운 주체, 전문가와 비전문가 경계의 소멸, 영리한 군중이라는 내용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우리사회가 국가중심의 사회에서 시민사회로 변화해 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심인사회라는 용어를 제시하여 보았다.

최근 수년간 인터넷을 매개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축을 네트워크 세대라고 규정을 할 때, 우리는 지금껏 침체된 교단의 흐름을 이들의 움직임을 통해 바꾸어 볼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이를 위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개념이 ‘교화(敎化)’ 개념이다. 국어사전 상에서는 교화를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거나, 부처의 진리로 사람을 가르쳐 착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그리고 교양 따위를 통하여 사상을 개조하는 것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교화’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최근 교단에서는 담보 상태에 빠져있는 교화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인 의미의 교화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포교나 선교활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교화는 물론 우리의 법을 전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이후 실제 교화 대상자가 법을 통해 진리에 눈을 뜨고 이 법으로 거듭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전과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 회상에 들어와 이 법에 목욕하면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교화는 쌍방향적이고 소통적인 개념

지금 네트워크 세대들은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교양학습이나 계몽활동의 대상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주체이면서 또한 대상이다. 우리는 그동안 자신의 세계에 안주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복음에 젖게 될 대상자로만 파악하였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법에 대해 궁금해 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만을 하였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별로 궁금해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교법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대답이라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술적으로 접근할 방법만을 찾았었고 그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 어느 기회에 교전 한 번 건넬 기회를 가지려고만 하였었다. 그들과 완전히 소통하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었다.

실제 우리 교법은 지우(智愚)의 차별 외에는 그 어떠한 차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재는 다르다. 교단 안에 수많은 차별이 존재한다. 중앙과 지방의 차별, 기관과 교당의 차별, 성 속의 차별, 그리고 재가와 출가의 차별. 그 차별 속에는 항상 지도하려 하는 주체와 계몽

되어지는 대상이 분리되어 있다. 네트워크 세대는 다양한 공론장과 공동체 속에서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는 평등하고 쌍방향적인 소통을 일상화 하고 있다. 교화는 본래적으로 수직적 개념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개념이며 소통적인 개념이다.

우리는 항상 일상수행의 요법을 통해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고,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고 한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 교단에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별이 생겨나 버렸다. 전문가는 오직 가르치려고만 하고 비전문가는 오직 배우려고만 한다. 서로간의 소통이 단절되어 버렸다.

우리 법은 법위단계를 따라 일정 수준이상의 공부가 되면 법호를 수여하고 설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거기에는 출가와 재가의 구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당을 30년 40년 다니고 정식 법마상전과 법강항마의 법위를 가진 재가교도들이 전문 공부 6년을 마친 신규 교무님께 설교를 듣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런 현실로 되어 있다. 초기 교단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부가 된 재가교도들은 법회에서 당당히 설교를 할 수 있었고 명실상부하게 공부실력을 인정받았었다.

지금 사회의 변화는 오히려 교단의 변화를 앞서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네트워크 세대들에 있어 사회적 신분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 질과 콘텐츠이다. 그들은 언제든지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여 네트워크 상에 퍼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 엄정하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

다양한 네트워크의 형성

앞에서 네트워크 세대의 특성으로 영리한 군중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영리한 교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단지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무장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하여 교도들 사이에 다양한 커뮤니티와 소통의 공간이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우리 교단에는 다양한 형태의 소통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출, 재가 간에 자연스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단적 보안이라는 문제로 정보가 단절되고 있다. 교단적인 차원에서 주요 의제는 상향식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일방적으로 지도부에서 생산되어 하달되어 내려가고 있다.

지난 2003년 영광에서 가열차게 전개되었던 반핵운동은 수직적 구조로 움직이면서 쉽게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었다. 우리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통과 네트워크가 만들어 질 수 있다면 이는 곧 사회에 존재하는 영리한 군중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계기로 발전할 수 있다.

상부로부터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은 오래갈 수 없지만 자발적으로 각자의 참여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은 오래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알차게 마련이다. 예컨대 교단 내에 반핵운동에 대한 공부모임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존재하고 그들이 여러 형태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자료를 모아 놓는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반핵운동 단체 및 인터넷 카페들과 자연스런 연결고리를 갖게 된다. 주요 관심사에 대한 대화와 소통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법에 대한 전달도 이루어 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영광에 조직되었던 반핵비상대책위원회는 영광의 상황이 부안으로 옮겨지면서 자연스럽게 해체의 수순을 밟고 이어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아 버렸다.

글을 맺으며

대중사님 당대에 우리 교단은 사회의 여론을 선도하는 선진적인 조직이었다. 일제하에서 경제자립운동을 하고 저축조합을 하며, 전후 전제동포 구호사업을 하고 남여권리 동일을 선포하고 뛰어난 여성지도자를 양성해 내었으며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등 교단이 행해 왔던 일들은 사회의 귀감이 되고 모범적 선례가 되었다.

우리 교단이 지금껏 사회의 인심을 선도하고 이렇듯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보다 사회보다 한발 앞선 안목과 교단 지도자의 경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네트워크 세대의 출현은 기성의 정치조직 뿐 아니라 시민운동 조직조차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동원하고 조직하는 시민운동의 흐름은 이제 참여하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정당구성원을 진성당원화 하고 상향식 공천제를 확대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무거운 이데올로기 담론에서 벗어나 대중적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정치 네트워크, 사회 네트워크들과 함께 하는 열린 정치가 실현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많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유독 종교 조직들은 아직도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가르치고 선도하려는 계몽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 세대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교리와 거추장스러운 조직적 위계를 벗어던지고 과감히 그들과 평등하게 소통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부 타 교단에서는 여전히 대형화, 중앙집중화를 부르짖으며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있으나 이는 이미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일이다.

우리는 최근 수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네트워크 세대가 중요한 시대적 주체로 떠오르고 있음을 목격하였다.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관심과 정보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는 커뮤니티들이 수없이 만들어지고 있고 한 순간 사라지기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네트워크 속에서 수많은 개인들이 자신의 정보와 이야기들을 블로그에 담아 수많은 다중들과 대화하는 채널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본다. 소위 ‘싸이질’은 이제 일상 활동에 있어 중요한 일과로 통하고 있다. ‘사이’를 하면서 그리고 ‘도토리’를 나누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촌수를 맺고 다단계적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은 이제 개인과 세상이 함께 소통하는 또 다른 모습이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라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일 뿐이다. 그들은 자신과 동등한 수준에서 때로는 재미있게 때로는 심각하게 대화하길 원한다. 오고가는 정보들은 어떤 경우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누구도 거기에 개념치는 않는다. 파편화된 정보들은 어느 순간 하나의 일관성을 가진 논리로 변화하면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우리가 네트워크 세대들을 대상으로 ‘교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욱 네트워크적으로 변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고 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커뮤니티들이 우리 교단 안에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만들어 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외형만을 만들어 내어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우리 교단의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창조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 한가지만의 목소리, 한가지의 통일된 행동양식은 네트워크 세대들에게 거부감과 무관심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다양한 해석, 다양한 네트워크, 다양한 관계성이 새롭게 교단 내에서도 만들어져야 한다.

네트워크 세대들은 우리에게 자신들을 변화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스스로 변화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

2030 세대에 대한 비전 만들기

이 도 하 | 교무 · 애니메이션연구개혁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정전 최초법어 수신의 요법 1)
사람을 제도하는 방법은 시대를 따라 다른 것이니..(인도품 57)
(성현이) 지금 나오시면 시대 따라서 이 교법과 같이 밝힐 것이다. (대산중사법어-수행편)
대중을 인도하는 사람은 항상 대중의 정신이 어느 곳으로 흐르는가를 자세히 살펴서..(교단 품 41)
대중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곧 천의를 어김이 되나니라. (요훈품 39장)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함이니..(교의품 8)
지금 세상은 활선(活禪)을 해야 한다. (대산중사법어 수행편)

1. 시대 읽기 - 디지털 혁명기

1) 새로운 디지털 혁명 - ‘마음을 닦아가는 디지털’

디지털 혁명이 이미 시작되었고, 혁명의 특성은 융합과 편재이다.

융합(디지털 컨버전스) - 합쳐짐 / (다양성에 기초한 일원화) - 일원상 진리의 하나의 속성.
편재(유비쿼터스 컴퓨팅) - 흩어짐 / (디지털의 생활화) -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무처선

새로운 디지털 혁명이 시작되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몰고 온 변화는 이제 디지털 혁명이라는 어휘를 빌어야 할 정도로 모든 제품과 서비스마다 디지털 기술이 살아 숨쉬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방식 또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²⁾

통신 · 방송 · 인터넷 부문이 융합하고, 결합하며, 복합하는 양상(컨버전스)이나 가상과 현실이 동등한 정도의 감각적 인식을 갖게 되는 가상-현실의 호환(VR, MR)이나 아날로그 세계에 디지털의 기술이 확장되는 편재 컴퓨팅 환경(유비쿼터스)이나, 디지털 혁명의 주관심은 **생활속의 디지털, 디지털의 생활화**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컨버전스³⁾, VR, 유비쿼터스로 요약해 볼 수 있는 **디지털 혁명은, 마음을 닦아간다.**

디지털 혁명은 대중의 요구와 테크놀러지의 변화에 근원하는데, 테크놀러지 개발의 원천은 역시 대중의, 인간 근원에 내재된 뿌리 깊은 욕구에 기인한다고 본다. 사람 사람의 마음에 근원적 필요성으로 느끼는 것과 마음을 회복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회귀 본능 등에 의해서 디지털은 필연적으로 마음의 구조와 속성을 닦아갈 수 밖에 없다.

디지털 컨버전스는 마음의 복합성과 동시성을 반영한다. 컨버전스(융복합화)와 다이버전스

2) SBS 서울디지털포럼 <제3의 디지털 혁명 컨버전스의 최전선> 미래M&B, P.11

3) ‘한 점으로 모이다’는 뜻으로 융복합의 의미로 쓰인다.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MIT 미디어랩 이사장은 “과거에는 다른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의 경계가 무너지거나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으로 풀이한다. (SBS 서울디지털포럼 <제3의 디지털 혁명 컨버전스의 최전선> 미래M&B)

(단순화, 전문화)는 원심력과 구심력이다.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지는⁴⁾ 마음은 집-방이 병행되는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의 속성의 근원이다.

가상과 현실의 호환. 아날로그를 닮은 디지털 세계의 구축으로서의 VR은 마음의 인식 구조를 반영한다. 불교의 심층심리, 유식학에서 밝힌 마음의 인식구조는 전오식이라는 오감을 통해 인식되어 여섯 번째 의식으로 통합된다. 가상현실의 구조는 오감을 자극하여 실재하지 않는 것을 실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원리라고 볼 때 VR은 인간 인식구조의 말단에서 출발한다.

유비쿼터스는 마음의 연속성과 닮아 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행되는 디지털 태동기에 시간은 연속성에서 불연속성으로 변환되었다. 0과 1사이에는 어떤 중간자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시간은 다시 연속성을 회복한다. 마음 작용하는 공부의 일분일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므로⁵⁾ 유비쿼터스의 사물 편재에 의한 연속성의 회복은 마음의 속성과 만난다.

디지털 혁명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에서 출발한다.

“유비쿼터스 환경이 가장 먼저 구현될 나라로 한국이 유력하다.” - 빌게이츠
- SBS 서울디지털포럼 <제3의 디지털 혁명 컨버전스의 최전선> 미래M&B, P.58

IT, 인터넷 인프라 강국 코리아. - 빌게이츠나 조지 길더, 네그로폰테 등 디지털 전도사들은 입을 모아 새로운 디지털 혁명과 이 혁명기에 한국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서 경탄과 찬사를 보낸다. 디지털의 완성, 유비쿼터스 환경이 가장 먼저 구현될 나라로 한국이 유력하다⁶⁾는 빌게이츠의 예언이나 텔레코즘의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최고의 디지털 국가⁷⁾라는 조지 길더의 찬사와 함께 ‘유비쿼터스 코리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신감을 보면, 한국이 정신적인 측면에서 세계의 지도적 위상을 가지게 될 것⁸⁾이라는 수운, 증산, 소태산 등 한국의 근현대 선각자들의 외침이 떠오른다.

장르간 미디어간 융복합은 한국 사상의 큰 줄기인 원융회통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한국은 인터넷-휴대폰-자동차 관련 인프라가 고르게 갖춰져야 하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고, IT 리더들의 표현처럼, 신기술과 뉴미디어에 열려있는 10대, 20대의 최고의 고객환경속에 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화려한 약속의 그늘에는 환경파괴와 인간성 상실, 디지털 소외계층의 발생 등 갖은 부작용과 윤리적 문제 속에서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하고 불안한 미래가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어떤 시대가 오고 있는가”에 대한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방향성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이다. 시대는 주체들의 각성과 실천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

4) 원불교 교전 <대중경> 수행품 1장. p.140

5) 원불교 교전 <대중경> 요훈품 1장. p.315

6) SBS 서울디지털포럼 <제3의 디지털 혁명 컨버전스의 최전선> 미래M&B, P.58

7) 같은 책, P.50

8) 원불교 교전 <대중경> 전망품 23장. p.393

2) 디지털 콘텐츠가 이 시대에 의미하는 것.

(1) 디지털 콘텐츠의 정의와 디지털 콘텐츠 시대의 도래

- 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는 첨단 IT기술을 사용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을 디지털 포맷으로 가공·처리하여 정보통신망, 디지털방송망, 디지털 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활용하는 정보를 말함”
- 디지털 콘텐츠 시대 도래의 배경⁹⁾
 - 인터넷망 대역폭의 증가와 초고속가입자의 급증으로 오디오,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정보이용 환경이 개선되고 IT기술의 발전으로 경제활동이 사이버공간으로 이동하는 등 디지털경제가 확산되고 디지털콘텐츠의 범위가 급속도로 넓어지고 있음
 - 그리고 매체의 다양화 및 융합화로 디지털콘텐츠가 정보통신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어 종합적·체계적 육성이 필요함 : IMT-2000, 위성방송 등 새로운 디지털매체가 등장하고, 방송, 신문, 음반 등 기존의 모든 매체가 인터넷으로 융합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경쟁력이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등장

디지털 콘텐츠는 ‘디지털이 실어 나르는 모든 것들’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시점에서 특히 디지털과 관련된 정의를 내리는 작업이 그렇듯이 이러한 정의들은 그리 수명이 길지 못하다.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법’ 이라고 정의한다면 최근의 애니메이션이 갖는 가능성과 미래적 전망에 대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정의작업은 다소 선언적인 차원에서 이뤄질때 보다 명확성과 방향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정의를 좀 더 좁혀 보자면 ‘디지털 환경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꺼리>들’ 이라 부르고 싶다. 볼꺼리, 놀꺼리, 배울꺼리, ... 디지털 환경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디지털 콘텐츠라는 의미다.

(2) 디지털 콘텐츠의 시대적 의미

디지털 콘텐츠가 이 시대에 의미하는 것은 뭘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영화, 음악,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등 흔히 접하게 되는 디지털 콘텐츠 들은 그저 볼 꺼리, 들을 꺼리, 놀 꺼리로서, 엔터테인먼트적 속성에 국한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또 앞선 정보통신부의 정의처럼 ‘정보’ 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새롭게 전개되는 디지털 혁명기에서 보는 디지털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나 인포메이션의 영역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포괄하고 있다.

첫째, (의미면에서) 디지털 시대, 디지털이 실어 나르는 모든 가치 있는 것.

디지털 시대가 열린 이후로 하드웨어 단계, 소프트웨어 단계를 지나오며 이제는 본격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가 빠진 디지털은 차는 있고 길은 잘 닦여 있으되, 갈 곳이 없는 상황과 같다. 더구나 제러미 러프킨의 말처럼 더 이상 소유가 필요하지 않는 접속의 시대¹⁰⁾에 접속의 대상이자 접속의 동기(動機) 또는 대리물로서의 디지털

9) 정보통신부. <디지털 콘텐츠 종합발전 사업계획 - digital Contents Action Plan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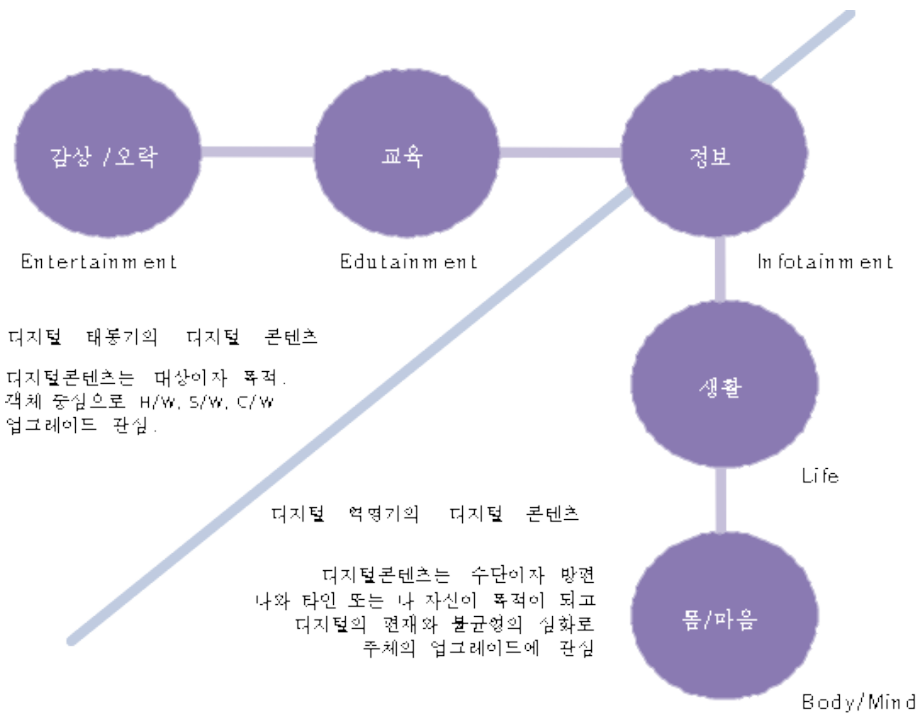
10) 제러미 러프킨 <소유의 종말, The Age of Access> 민음사

털 콘텐츠는 이전에 비해 더욱 큰 비중으로 다가온다.

둘째, (산업면에서) 가치사슬 산업의 발달을 요구하는 시스템적인 산업, IT인프라에 의존성이 강하며, 온라인 생산, 유통, 소비산업, 21세기 지식산업으로 무형자산 제조산업의 모델,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 역할 수행¹¹⁾

- 부존자원이 없고 인력자원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에 보다 적합한 산업유형이다. 애니메이션에 있어서도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에 따라 공해물질인 셀과 셀물감 등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친환경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는 10대 신성장 동력 또는 미래기술 범주에 선정되었으며, 향 후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어갈 주요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아시아권의 한류현상은 이러한 기대를 더욱 부풀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셋째, (내용면에서) 감상-오락성, 정보-교육성을 넘어 생활의 일부로.



디지털 혁명의 진전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는 감상, 오락, 정보, 교육의 영역에서 점차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개별 디지털 콘텐츠 간의 상호 컨버전스 현황속에서 초기에는 감상-오락적 성격이 강하던 디지털 콘텐츠가 점차로 정보-교육적 내용과 감상-오락적 성격이 융합되면서 Edutainment, Infotainment 등의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생활의 영역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속에서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11) 이태화 <21세기 멀티미디어,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위상>

	디지털 태동기	디지털 혁명기	이후
지향점	아날로그→디지털	디지털→아날로그 확장	공존
소통방식	인간-컴-인간 컴-컴	인간-사물-인간 사물-사물	인간-인간 인간-자신
관점	객체지향	주체지향	주객공유
주요기반기술	인터넷, VR	모바일, 유비쿼터스	양자
디스플레이	고정성	이동성	상호성

3) 디지털 시대의 양면성 - 시대에 대한 문제제기.

° 정신과 물질, 도학과 과학간 부조화에 대한 경고

동서양의 선지식들은 일찍부터 정신-물질간 부조화의 모순점을 지적해 왔다. “종교없는 과학은 맹목이고 과학없는 종교는 절름발이” 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이나 도학과 과학의 병진을 주장하며 개교한 원불교의 주장에 잘 나타나 있다.

“안으로 정신 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육이 쌍전 하고 내외가 겸전하여 결함 없는 세상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현대와 같이 물질 문명에만 치우치고 정신 문명을 등한시하면 마치 철 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들려 준 것과 같아서 어느 날 어느 때에 무슨 화를 당할 지 모를 것이니, 이는 육신은 완전하나 정신에 병이 든 불구자와 같고, 정신 문명만 되고 물질 문명이 없는 세상은 정신은 완전하나 육신에 병이 든 불구자와 같나니, 그 하나가 충실하지 못하고 어찌 완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내외 문명이 병진되는 시대라야 비로소 결함 없는 평화 안락한 세계가 될 것이니라.”¹²⁾

특히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도학과 과학의 오늘날과 같은 부조화, 불균형은 테크노 폴리와 같은 기술의 노예로의 전락을 예고한다. 17세기 이전의 도구사용문화가 일상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징적인 세계에 봉사하던 본래의 취지에서 점차 효율성, 전문기술, 표준화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마침내 1911년 테일러의 과학경영원칙에 이르러, 인간은 기계만도 못한 존재로 추락한다. 이러한 테크노 폴리의 밑바탕에는 과학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과학만능주의(Sientism)가 깔려있다. 결국은 이러한 문화적 상황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이 제시하는 규범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 수 밖에 없다는 포스트먼의 경고¹³⁾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인간 존엄성과 로봇

로봇공학의 발전은 장차 로봇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로봇공학 전문가인 한스 모라벡은 2040년까지 개발될 4세대 로봇은 사람처럼 보고 말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로봇은 소프트웨어로 만든 인류의 정신적 유산, 이를테면 지식, 문화 가치관을 모두 물려받아 다음 세대로 넘겨줄 것이므로 이들에게 인류의 진정한

12) 원불교 교전 <대중경> 교의품 31장. p.131

13) 이인식 <21세기 키워드> 김영사. P.244

자손이라는 의미의 ‘마음의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쓴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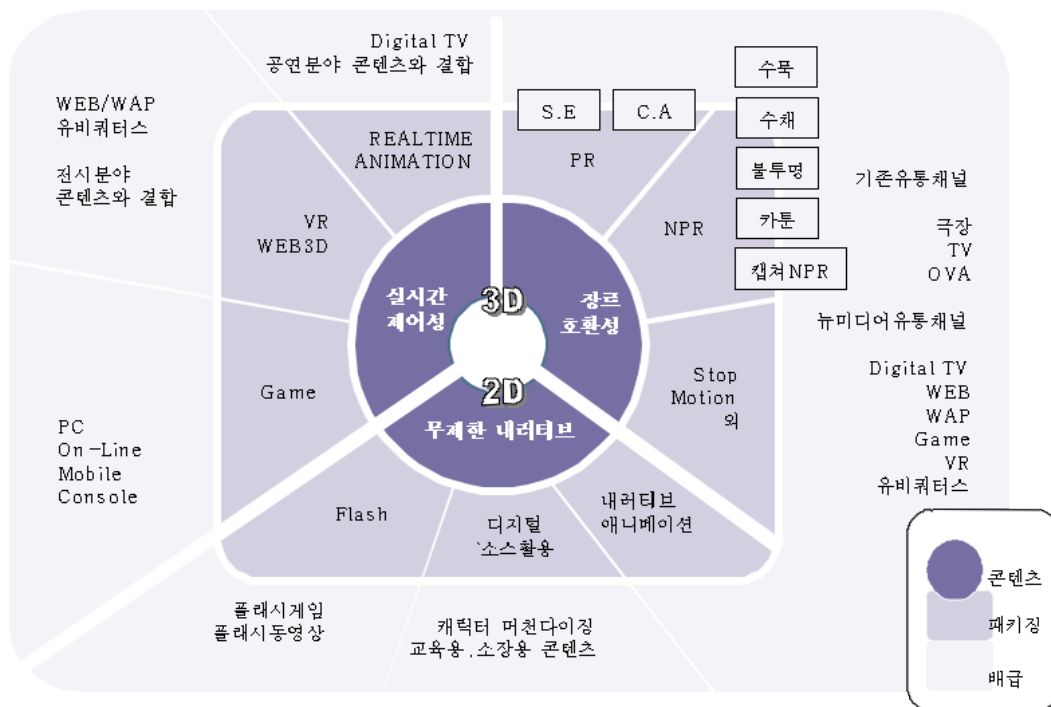
° 러다이트

1811년에서 1816년 사이에 걸쳐 영국에서 일어난 기계파괴 운동은 러디즘(Luddism), 이 운동 가담자들은 러다이트(Luddite)라 불린다. 결국 유혈충돌이 일어나서 주동자들은 투옥되거나 교수형에 처해지고 이 운동은 막을 내렸으나 오늘날 러다이트 운동은 기계가 노동자를 내쫓는 상황에서 기계에 반대하는 상징적 의미로 존속하고 있다. 특히 기계가 일자리 위협에 그치지 않고 인간존재자체에 도전할지 모른다는 주장이 폭탄 테러리스트 테드 카진스키 등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며 그는 인류가 모든 기술을 버리고 원시시대와 같은 자연으로 복귀할 것을 주장했다.¹⁵⁾

정신과 물질의 가치 정상화, 도학과 과학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디지털의 혁명적 완성을 앞둔 종교성의 발견과 이의 확장은 절대절명의 명제로 여겨진다. 특히 정신세력의 확장¹⁶⁾을 통한 물질과의 조화에 초점을 둔 ‘선용’은 디지털 혁명의 시대 핵심적 화두의 하나이다.

4) 애니메이션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진화 양상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디지털 콘텐츠는 진화하고 있다. 이것은 대중(소비자)의 요구와 테크놀러지의 발전에 기인한다.



2. 대중 알기 - 주체적 참여의 세대, 변화주도의 세대

14) 같은 책, p.30

15) 같은책, P215~217 요약.

16) 원불교 개교의 동기. 원불교 교전 <정전> 개교의 동기. p.21

- "새로운 대중의 취향은 내용을 별로 요구하지 않고 형식과 스타일의 즐거움에 훨씬 더 열려있기 때문에 덜 속물적이고 덜 교훈적이다... 이는 긍정적으로 볼 때, 더 잘 보고, 더 잘 듣고, 더 잘 느끼는 것,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경험하는 솔직한 감수성의 회복을 말한다." - 원일 <예술과 대중의 취향>

- "대한민국 전 인구의 30%인 10대,20대,30대가 ... 이전 세대들과는 다르게 전통과 현대에 대하여 무의식적으로 역동적 균형감을 지닌 한국의 희망." - 김지하

- "자신의 삶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가 남득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개인화사회로 이동하면서 .. 개인적 생활에 바탕" - 조한혜정

시대의 변화와 테크놀로지 혁명의 근원에 대중의 마음, 욕구가 있다.

- P세대란 / 사회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Participation) 열정(Passion)과 힘(Potential Power)을 바탕으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대 (Paradigm-shifter)

- P세대 특징 짓는 공통 키워드 /

- ① 도전 (Challenge): 권위와 고정관념 거부하고 새로움과 변화 추구, 자유로운 사고
- ② 관계 (Human Network): 정보의 공유, 선호하고 비슷한 성향끼리 뭉치기 선호
- ③ 개인 (Individual): 솔직한 의사표현, 개성과 다양성 존중
- ④ 경험 (Experience): 한 분야의 전문가 보다 다양한 경험 선호, 체험과 경험 중시
- ⑤ 감성 (Fun/Feel): 행동 자체에 엔터테인먼트 요소 많이 가미, 好/不好중심으로 판단

'한국이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희망은 최고의 고객환경 때문'

자연미 (퍼지미) - 퍼지적 환경에 대응하여 퍼지적 습속이 생활 속에 형성됨
한국의 자연미는 퍼지적 자연미로 크리슴적, 유클리드적 미를 부분집합으로 포함하는 상위개념.

소박미 (단순미와 프랙탈미) - 접힘/펼침의 반복으로 크기는 작지만 길이와 에너지는 무한대인 한국의 지형.

풍류미 (통합적 상위개념) - 자연진화적이며 자유자재하는 미적 놀이성.
흥의 기쁨과 한의 슬픔과 무심의 초월, 탈속이 공존함.
중국이 합리적, 종합적이고 일본은 감각적, 분석적이라면, 한국인의 미의식은 주체의 참여를 통한 주체, 대상의 융합 또는 내적 통합.

자료 : 심광현 <한국의 문화의 정체성> 한국의 미와 예술을 중심으로 / 요약

3. 교화 목적 바로 잡기 - ‘교당’에 대한 정의 목적과 수단, 목적과 결과 재정립
-정의를 ‘내용담기’에서 ‘방향잡기’로 확장한다면 다양한 교당의 정의를 모색해 볼 수 있다.

교당은 일상속에서 비일상과 만나는 ‘일상적 축제의 공간’

- 목적과 결과를 혼돈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안철수)
- 정시선(비일상)과 무시선(일상), 각성(채찍,비일상)과 수행(고삐, 일상)의 병행 체험 공간
-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적극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대중화된 개별체험이 가능한 공간

4. 교화 방향 및 교당 활용 전략 세우기

1) 시대를 고려한 교화 (융합과 편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삶의 방향성 제시하기)

-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선용의 측면에서 보면, 몸-마음 콘텐츠 시대로의 진입에서 컨버전스는 막힘이 없고 치우침이 없는 마음의 발견에 역할할 수 있다. 한편으로,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는 대조적 관점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생명체의 호-흡과정처럼, 마음의 집-방처럼 자연스러운 음양의 순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VR, MR 등을 통해서는 오감의 개방과 의식, 아뢰아식으로의 입-출에 있어서 유무를 초월한 자리를 관조하는 마음의 양성, 마음의 연마과정에 역할할 수 있다.
- 유비쿼터스를 통해서서는 마음의 실행단계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동정일여와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행해지고 천지의 식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정간 끊임없이 자성을 여의지 않는 마음공부가 가능해지도록 한다.

2) 대중을 고려한 교화 (도전적 가치관, 자발적 참여, 인터넷을 통한 폭발적 변화 특성 고려)

- 지속적 새로움 제시 / 처음부터 고객 만족 추구 / 맞춤 상품화 / 총체적 브랜드 경험 제공 / 재미와 감성으로 차별화 (P세대 마케팅 5대 전략)
- ‘정신의 지도국’, ‘한국인의 미의식’ (자연미, 소박미, 풍류미), ‘한류현상’ 등 분석과 고려 필요
- 내용보다는 형식과 스타일에 젖는 대중의 취향고려한 문화 교화 중심

3) 생활·문화 중심의 콘텐츠 교화

- 시대와 대중 및 생활(유비쿼터스, 컨버전스 환경)에 적합한 가례, 교례의 정비
- 디지털 시대 생활철학의 제시
- 재미있게 풀어가는 생활의 문제들 / 하리추 상담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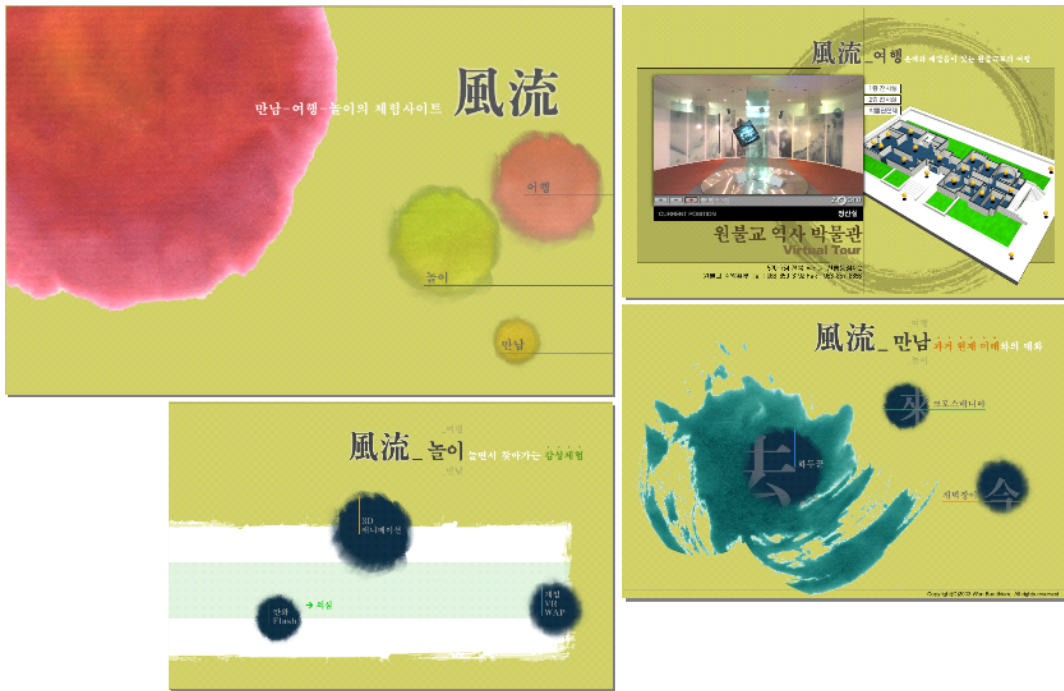
참고1> 온-오프라인 연계 교화 마스터 플랜안

		기반조성단계 (~92년)	개발단계 (~95년)	활용단계 (100년 전후)	목표
기반조성	인력	출가개발전문인력 재가, 출가 활용인력 재가 전문 자문인력	교육-개발센터 공간 마련	출가인력의 PP화 재가인력 활용 극대화	인력 양성 순환 시스템
	자본	연계 프로젝트	정부 지원 국내외 각종 공모전 활용	출시 가능 형태 개발 (마음공무 특화, 집중력, 치유프로그램 등)	경제 자립형 개발-활용 체제 구축
	SYSTEM	조직정비 (기획, 교화, 개발) 개발 소모임 활성화 유도 온라인 인프라 구축	교당 디지털 문화 컨설팅	디지털콘텐츠 유통구조 확립	교육-제작-유통 자동 순환 구조 마련
개발	콘텐츠 개발	다양한 캐릭터 개발 플래시 애니, 만화 클립 개발	방송원도우, 콘텐츠 공급	다양한 Vehicle 에 대응한 콘텐츠 개발 공급	상설 콘텐츠 개발팀 가동
	온-오프 이벤트 연계	4축2재 온라인 이벤트 성지순례 이벤트	다양한 테마법회 개발 대각개교절 중심 이벤트 (사이버 축제 개최)	교당을 지역문화 선도의 중심거점으로 발전시킴	교당 활용성 극대화 온-오프연계
	웹사이트 구축	관련 세미나 및 연구활동	국내+영어권 웹사이트	문화 기능, 오락기능 강화 실/비실시간 상담기능 강화	수용자 중심 웹사이트 구축
	청소년 교화	청소년 전용 온라인 공간	청소년전담 / 콘텐츠개발 인력의 연계 활용	청소년 에너지 발산 레저-훈련 동시 프로그램	?재미?있고 ?좋은? 프로그램 공급
활용	디지털 시대 향도	디지털 분야 전문가팀 가동	디지털 시대 삶의 해법 (만화 <마음공무? 등)	교당내 첨단 디지털 공간 (Theme Complex) 마련	삶의 방향성과 가치 제시
	종교본연 기능충실	분야별 상담 전문가팀 가동	온라인 상담기능 강화 상담-훈련 연계 문제해결 프로그램 개발	마음 진단-처방-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	구체적, 실질적인 ?구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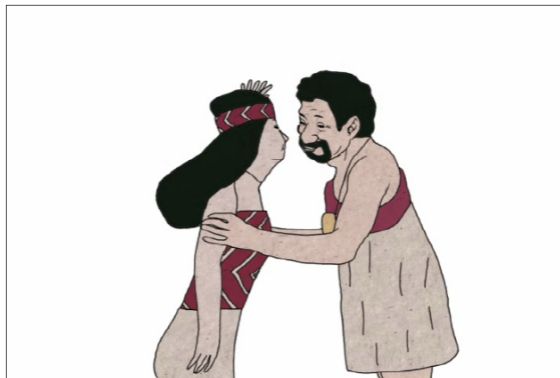
참고2>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콘텐츠

출가 기획팀 기획, 별도 가상 제작팀 (창작집단 풍류) 제작 중

1. 여행-만남-놀이가 있는 <풍류> 사이트



1. <53주 좋은말씀> - 일년 간 매주 만화, 플래시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인터랙티브 웹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3월2주 _ 특성 이해하기



4월 1주 _ 전체각

2. <하리추상담소> - 하타, 아리, 추의 삼학도인이 그때 그때 바뀌는 주인공과 함께 삼독마 (탐,진, 치) 및 망념과 수마를 상대로 싸워 나가는 스토리. 주인공과 삼학의 연마와 실행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간다. 공간 배경은 첨단 환경이 갖춰진 미래교당 <하리추 상담소>

참고3> 향후 개발 아이템

- 웰빙컨셉의 요가 프로젝트
- 재미있는 일기게임
- 온라인 성불도 게임
- VR과 오감 감수성 체험
- MR - VR의 호환과 위빠사나 체험, 觀의 단계 - 照의 단계 연마
- MR을 통한 경계 대응 조절 시스템
- 유비쿼터스와 동정일여.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체험 프로그램
- 자기발견 프로그램, 인간-인간 상호 소통의 새로운 환경

<지정토론>

역동적이며 창조적인 교화를 위하여

문 은 식 | 교무 · 전주교당

저는 어려서부터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취미가 많았습니다. 출가해서 그런 쪽에 관심 갖는 것 자체가 외학을 꿈꾸고 수도인의 정신을 흩어버리는 것 같아 포기하고 접고 살았지만 내 피 속에서 꿈틀거리는 에너지는 아직도 고동치고 있습니다. 교회현장에 나와 그런 갈증은 더욱 커지고 늘 역동적이면서 교회 그자체가 창조적인 예술로 승화되는 순간순간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도하 교무님의 연구내용에 대한 토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확고한 신념과 선구적인 안목으로 교회불모지나 다름없는 애니메이션 부분을 개척하고 계시는 도하 교무님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던 차에 이 연구물을 접하게 되어 남다른 감사와 애정을 느낍니다.

도하교무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연구해주신 ‘2030 세대를 위한 교회전략’을 읽으면서 바로 이거다! 하는 신념이 생깁니다. 디지털문화나 애니메이션에 대한 문외한이지만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매우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좀더 일찍 이런 움직임과 시도가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이제라도 이런 연구물을 제시해 주신 교회연구소와 도하 교무님께 감사드리고 짧은 생각이긴 하지만 앞으로 함께 연구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을 제시해봅니다.

1. 디지털 시대엔 기본적인 교화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의 변화를 어떻게 전개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교화의 가장 핵심된 과제일 것입니다. 교회인식의 기본적인 변화는 교당에서만 교화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교당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2. 우리의 교화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즉 원불교라는 브랜드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 브랜드로 자리 잡는 일입니다. 애니메이션이나 풍류 사이트 등은 원불교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불교 용어의 현대화 및 일반화, 원불교적 이미지 구축과 다양한 캐릭터 개발, 다양하면서도 쉬운 원불교 음악의 창조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풍류 사이트의 취지와 방향은 적극 지지합니다. 다만 사이트 이름과 구성 내용은 좀더 많은 연구가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원불교적 수행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급하고 살려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신앙문화의 질을 어떻게 높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저의 소견이긴 하지만 수행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문화 속에 사운을 중심으로 한 신앙문화와 이를 거부감 없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과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할 문제이고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때 우리 교회 현장은 매우 역동적이며 창조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교화,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 대학생 중심으로-

송 정 현 | 교무 · 나운교당

1. 들어가는 글

원불교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꿈과 희망에 찬 교화현장에 첫발을 내딛을 즈음, 한 소책자에 실려있는 글을 보게 되었다. 원불교 청소년국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종교의 필요성과 관심도에 대한 통계자료였다. 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우리 삶에 있어 종교는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 ① 어려운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 ② 삶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 ③ 마음에 평화와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 ④ 믿음을 주기 때문에
- ⑤ 자신감을 주기 때문에

라는 순으로 응답을 했으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종교가 얼마만큼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단히 소중하다 37.2%, 약간 소중하다 38.1%로, 종교에 대한 관심도가 70%이상으로 매우 높음을 보면서 우리 교단의 숙제인 청소년교화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희망차고 가쁜 마음으로 청소년 교화에 임하게 되어 작년까지 청소년들과 함께 하였으며, 부족하나마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었다. 이 글은 본인이 교화현장에서 적용했던 교화방법과, 청소년 교화를 위한 방안과 교단에 대한 바램들을 정리한 것이다.

2. 교화 전략

갈수록 찬란해지는 외화(外華)에 욕심이 발동하여 우리의 청소년들이 자기 본연의 본분과 분수를 잊고서 물질추구의 노예생활을 면하지 못하고 늘 끌려만 다니는 우리의 젊은 청소년들을 보면서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 라고 제도의 문을 여신 대중사님의 깊은 뜻을 가슴깊이 받들어 새깁니다. 도덕문명만이 길을 잃고 해매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이 길만이 인류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 보고, 청소년들에게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주기 위해 교역의 현장에서 무엇이 과연 중요한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에는 교무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과 교단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 교무 개인이 살펴야 할 것은 설교, 단회, 순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한다.

1) 설교의 중요성

현재 원불교 청년법회의 시간은 평균 1시간을 넘기지 않고, 매주 특색있는 법회를 위해서 기도법회, 문화법회, 명상법회, 회화법회 등으로 법회를 진행하는 것이 교본처럼 되어있다.

나도 또한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법회를 가감해서 시행해보았지만, 모든 법회에는 반드시 설교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법회시간도 1시간 이내로 고정시키지 않았다. 설교학 책자에도, 많은 동지들의 경험담에도 설교는 20-30분 정도가 좋다고 하는데, 나는 10년 전에 전주교당에 처음부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설교시간만 1시간’이라는 원칙을 고집해왔다. 설교시간이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청년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내용으로 준비된 설교인가가 중요하다고 느끼고 설교연마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그러나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고 해서 설교준비가 다 끝나고 명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설교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수업과는 약간 다른 면이 있다. 학교에서는 매일 똑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지만, 교당법회는 그렇지 않다. 입교하여 신앙이 뿌리내린 회원은 한둘에 불과하고, 입교한지는 오래되었지만 신심은 적은 회원과 신입회원이 있고, 매주 법회 때마다 번갈아 나오는 회원 등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속적인 교법을 전하는 데는 매우 어려움이 따른다. 신입회원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면 기존의 회원들은 답답해하고, 기존의 회원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면 신입회원은 이해를 못하고 싫증을 내며 따분해한다. 대략 보편적인 눈높이 정도에 설교안을 준비하고 법회에 임하여 설교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회원들의 이해 정도를 살핀다. 기존의 회원 중 나의 설교를 잘 체득하지 못한 법우와, 신입회원 중 이해를 못하는 법우들을 잘 파악하여 법회 후(다음주 법회 전까지) 어느 시간을 내서라도 법회에 대한 보충 이야기를 한다. 기존회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법문을 이야기해 주며, 초입회원에 대해서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면서 눈높이를 조정해간다. 이러한 방법으로 설교를 하여, 1시간 설교에도 회원들이 지루해하지 않았으며 교화에도 성장이 있었다. 물론 일부 회원들의 불평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것들은 알찬 내용, 재미있는 예화 등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2) 단회의 중요성

법회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단회를 한다. 단회의 시간은 단장에게 일임하되 단원들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다. 각 단별로 단장이나 중앙의 인도아래 진행이 되는데, 교화단 책자활용과 단원들의 고락에 대한 이야기와 애경사 문제를 점검하고 공지사항을 전달한다. 신입회원들은 이 단회를 통해서 쉽게 적응이 되며, 뒤풀이를 통해 하나의 동지의식을 형성한다. 교무는 이 단회시간에 전 회원들을 점검하여 살피고 챙기는 일에 주력하며, 뒤풀이에 참석하여 개별상담 및 회원들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갖는다. 뒤풀이 시간은 회원들이 마음을 터놓고 법회시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뒤풀이 시간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교무가 단회와 뒤풀이시간을 잘 활용하여 교도의 성향을 파악하고 친분을 맺어 놓아야만 계속해서 법회로 이어질 수 있고 속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다.

3) 순교의 중요성

교화에서 순교의 중요성은 새삼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기에 생략하고 여기서는 내가 주로 하고 있는 순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 직접 방문하는 순교

기본적인 순교방식으로 회원이나 회원 가정의 애경사시 반드시 찾아가 함께한다.

* 교당을 찾게하는 상담형의 순교

회원들의 성향에 따른 순교방식으로 주로 법을 통해서 교화를 해야 할 대상에게 많이 사용하는 순교방식이다. 기도의식을 겸하고, 식사도 하면서 장시간 함께하면 성과가 좋다.

* 전화 순교

가장 많이 하는 순교로 전 회원들에게 일주일에 한번은 반드시 전화를 한다. 전화 순교를 위해서 교무는 회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훤히 꿰고 있어야 한다. 휴대전화로 통화를 원만하게 하려면 회원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교도 자녀들의 명단을 파악하여 계속해서 전화를 한다. 부모님들과 같이 양공작전을 펴서 자연스럽게 교당에 나올 수 있도록 한다.

* 메일 및 문자 메시지 순교

급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항(회원 애경사 등)이나, 교당의 공지사항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좋은 법문 및 기도문 등을 메일로 보낸다. 문자 메시지의 경우 효율성이 아주 좋았고, 메일의 경우는 메일주소가 없거나, 메일 확인을 자주 안하거나, 스팸메일이 많은 관계로 효용성이 떨어진다.

3. 청소년 교화를 위한 방안(교단에 바란다)

1) 청소년 교화 담당 교무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근자의 교단 흐름을 보면 청소년을 지도하고 있는 젊은 교무들이 처음 교화현장에 부임해서는 의욕있게 출발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교화 의지는 시들해지고 복지기관이나 어린이집 관련 및 기타 기관의 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들어서는 학부시절부터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며, 대학원을 진학하는 대부분의 현장교무들도 교화부분보다는 복지와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것도 교화분야가 힘이 들고 비전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교화 실적에 따른 인사고과의 반영을 들 수 있겠다. 지금과 같이 젊은 시절에는 기관을 선호하다가 연조가 들면 교당에 주임교무로 발령이 난다면 교화의 침체는 계속되리라 본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청소년교화를 성공한 자가 일반교화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청소년 교화에 실적이 있는 교무들을 년차에 관계없이 주임교무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년차에 따라서 계속인사를 한다거나 기관과 교당을 넘나드는 교화행정을 펴간다면, 실적이 우수한 몇몇의 교무들마저도 의욕을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2) 대형교당에서의 청소년 전담 교무제 시행

우리 교단에 청소년 전담교무가 시행중이지만, 다양한 방면의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인은 4년간 남중교당에서 3명의 교무가 함께 근무를 하였다. 3년간 내가 맡은 분야는 어린이, 학생, 청년을 전담하고, 일반 보조외 기타 교당잡무의 일이 있었다. 청소년교화에 최선을 다하여 교구 연말시상에서 2년간 최우수상을 받기도 하였으나, 청소년 분야의 일과 일반교화가 맞물리면 일반교화에 먼저 손이 가야하기 때문에 정작 청소년교화는 밀려나게 되며, 또한 체력에 무리가 오고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다.

교무가 3인 이상이 배정된 교당에서 청소년교화를 담당할 교무는 교당에 꼭 필요한 업무만 하고, 청년 학생 어린이만 전담한다면 청소년교화의 돌파구를 열기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첫째: 청소년법회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단체를 방문할 것이며, 청소년들에 관련된 문화를 접할 것이며, 청소년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책도 접할 것이며, 교단 내·외의 훈련 등에 자유롭게 참가하여 견문과 지견을 넓힐 것이다.

둘째: 회장단과 단장, 중앙 등의 임원들을 교육시켜서 대형 교회에서 하듯 재가들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교무는 오롯이 교무의 일만하는 시스템을 정착하는 것이다. 원기89년 대 각개교절에 청년이 73명이 나왔으며, 평균 4-50여명의 청년들이 함께하여 법회를 보았다. 그런데 교화단 조직을 잘 활용하지 못하여 청년의 수가 더 늘어나지 못했다. 부단히 노력했으나 혼자서는 힘이 부치는 일이었다.

셋째: 교당주변의 청소년 담당교무들과 연합하여 법회를 보자고 제안한다. 지금과 같이 교당에 자잘한 업무가 많고 청소년들의 수가 영세한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법회가 운영되지 못해 법회에 나오는 몇 안되는 청소년들마저도 법회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법회운영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몇 교당에 연합을 한다면 함께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20-50여명정도가 되리라 본다. 이 정도가 되면 청소년들도 법회에 흥미를 느끼며, 자체적 행사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법회에 인도하게 되고, 법회를 진행하는 교무님들도 의욕이 생겨 법회에 정성을 들이게 되며, 법회진행 및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교화가 활성화되리라 본다.

3) 청소년 교화비

청소년 교화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면서 민감한 문제가 청소년 교화비이다. 교단이 영세하고 교화비가 넉넉하지 못한 현실은 충분히 고려하지만, 교당행정을 책임 맡으신 주임 교무님들은 어떻게든지 부직자들이 청소년교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 교화비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숙제로, 다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여기서 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다만 행정적으로 교당예산의 몇 %를 청소년교화비로 지출한다는 행정적인 제도적장치가 있어야 청소년 담당교무들이 자유스럽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옮길 수 있다고 본다. 교구장님께서는 교당 교정지도시나 교무회의시 우선적으로 청소년교화비의 지출을 점검하고 시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4) 대학생교우회

현재 교단의 예비교역자들 중 편입생들의 분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실력있는 인재들이 대중사님의 교법을 알아보고 출가서원을 세운다는 것은 교단의 미래가 희망적임을 뜻한다. 이렇듯 젊고 능력있는 인재들의 출가 비중이 높아가는 때에 우리들은 대학생교우회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해 본다.

첫째: 년 2회(방학중)이상 타 종교 대학생 교화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통해서 우리 교무들에게도 대학생 교화에 대한 안목이 열리게 해주어야 한다. 현대사회가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관계로,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것과 교무들이 전달하는 것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세미나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둘째: 현재 각 대학 교우회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들은 대부분 법회시간에 학교에 당도하여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다. 출장법회의 경우라도 최소한 법회가 있는 날은 하루 종일 대학생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 요즘 대학생들은 시험 스트레스, 취업준비 등으로 마음에 여유가 없어 교당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교무가 학교에 가서 식사 등을 함께하며 진로문제, 인생문제를 상담해야 한다. 이러한 상담의 경우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장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셋째: 총부에 있는 원대연과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구가 각 교구에 배정이 되어 대학교화에 총력을 다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대학생 교화의 경우는 학생·어린이 교화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시간적·금전적 여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당에서 지원하기가 힘들다. 교구 차원에서 지원해주어야 성공할 수 있다.

5) 청소년 교화활성화를 위해서 나와 우리교무들이 준비해야 할 덕목

공자님께 노나라의 미래를 물었을 때, 공자님께서서는 그 나라의 청장년들의 의식수준을 보면 미래는 충분히 예측된다고 하셨다. 우리 원불교 교단의 미래는 어떠한가? 지금은 비록 교세가 약하여 조금 힘이 들고 어렵지만 젊은 교역자들의 교법에 대한 철저한 무장과 신심, 공심, 공부심으로 뭉쳐진 교화에 대한 강한 서원이 있다면 우리교단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교화는 제도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현재 교단에서는 부족하나마 청소년 교화 활성화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다 나왔다고 본다. 다만 이것을 실행하는 현직의 실무담당 교무들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제도를 잘 활용하여 실행에 옮기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내가 지금여기에서 청소년교화를 하지 않으면 원불교의 미래는 없다는 투철한 교화관 정립이다.

일본 신발업체의 라이벌인 두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현지답사단을 파견했다. 한 회사는 신발도 신지 않고 다니는 이런 나라에서 누가 신발을 사 신겠는가하고 평가를 했고, 다른 회사에서는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황금밭이 또 있는가라는 평가를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이 평가보고서를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교단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대처하여 우리들 각자 각자가 현실의 어려움에 안주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해내려는 전교단적인 기운이 일어나야 한다고 본다. 현재까지의 교단은 선진님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의 교화의 해법을 열어가는 것은 젊은 교역자들의 몫이라 생각한다.

청소년 교화에 대한 생각이 열리고, 원대한 뜻이 있는 동지들이 여기저기에서 교화의 목소리를 내야한다. 젊은 동지들이여!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 여기에서 주저앉아서는 안된다. 누가 해주기를 바라면 우리는 다 죽는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교화전략에 바탕하여 죽기로서 노력하는 것뿐이다.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그 뜻을 이루어준다. 비록 지금은 힘이 들고 어렵겠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한단 말인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신념과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투철한 교단관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

둘째: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실력을 갖추자.

사랑하는 나의 동지들이여! 우리 이 어려운 돌파구를 열어가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자. 재학 중에 있는 후배들은 6년의 수학기간에 정말 피나는 노력을 다하자. 내가 무엇이 얼마만큼 부족한가를 파악하고, 지금의 청소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준비하자. 동지들과 서로 권면하면서 우리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죽도록 공부하자. 지도하시는 지도교무님들도 우리의 미래가 이 후배들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보고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자.

일선 교당에서 근무하는 교역자들은 투철한 신앙관과 수행에 한점 부끄럼 없는 실력을 갖추자.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침체된 원인을 우리 스스로 찾아보면 나는 우리 교역자들의 실력부족과 노력하지 않음이라고 본다. 어느 방면에 어떠한 실력이 부족한가를 파악하여 스스로 부단한 노력을 하여 지도받는 자 이상의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실의 상황에 안주하지 말자.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수도인인가?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확연히 알았는가? 자문자답해보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눈코를 쥐어짜고 공부해야 한다. 교무 개인 개인이 실력을 갖춘 만큼 우리의 교회는 살아난다고 본다.

셋째: 교단의 행정력을 교회에 우선하자.

교단의 규모가 커지고 교세가 확장이 되어 원불교의 위상이 널리 알려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요, 희망이다. 그러기위해서 교단의 지도부에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리라 본다. 다만 본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하는 것은 교회, 교육, 자선, 봉공, 복지 등의 사업이 다 교세확장과 연관이 있지만 교단이 영원이 살아갈 수 있는 밑바탕은 교회에 실력있는 인재들이 모여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교회현장이 메리트가 없고, 미래의 진로가 불투명하고, 교당교무님들의 용금이나 복지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복지분야 등이 계속해서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교회정체현상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본다. 교단행정을 책임 맡고 있는 지도부서에서는 교단의 이와 같은 흐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예비교역자나 젊은 교무들의 사고방식을 교회가 최우선이며, 교화를 잘 하는 것이 교단만대의 희망이라는 사고방식으로 전환시키는 쪽으로 행정을 펴야한다고 본다.

<지정토론>

교화,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 대학생 중심으로-

김 제 원 | 교무 · 안암교당

대학생 청년교화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한 송정현 교무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교화에 대한 정현교무님의 열정과 신념이 저에게도 전달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1. 발표내용 중 ‘교화전략’ 중 설교의 중요성에서 설교시간과 난이도 선택에 대해

1)설교시간은 재미와 유익이 있다면 객관적인 소요시간보다 주관적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면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교무의 인사이드와 신심이 약한 사람(초입자 등)을 생각해볼 때 설교시간도 어느 정도 중도적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2)난이도를 보편적인 눈높이 정도로 하고 신입회원에게는 보충설명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 정성에 먼저 박수를 보내고 냅니다. 그리고 첨가하여 설교의 난이도에 있어서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하자면, 설교에 있어서 ‘예화’를 들으면 신입회원이나 관계없이 다 이해가 쉽고 설득력이 있게 되어서 예화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화의 내용도 대중사님이나 역대 중법사님 선진님들과 1인칭의 예화, 최근의 가까이 접하는 예화라면 2배 이상의 효과가 있으면서 신심·공심과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교사에 대한 공부가 더 절실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낍니다.

2. 단회의 중요성에서 뒤풀이 문화에 대하여

법회 후 단회가 꼭 필요하고 참 중요합니다. 속 깊게 다가서는 기회도 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가 원불교적 문화가 아닌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술 문화에 대해서도 교역자들의 취사가 서로 원불교적 문화에 하나로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법에 맞는 정(情)겨운 문화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3. 상담형의 순교에서 기도의식을 함께 한다는 내용과 상담에 대해 교당에 찾아온 젊은이에게 기도의식을 한다는 내용 참 좋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덧붙여 상담하기위해 온 교도가 바로 교무를 만나기보다는 전에 먼저 법당에 가서 법신불전에 분향하고 심고 올리고, 헌배하는 신앙적 문화도 정착화 되면 좋겠습니다. 교화에 있어서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 참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간접적 만남, 걸 만남, 대중 속에서의 만남만이 아니라 1:1의 직접적 속 깊은 만남을 통하여 그 영혼의 개인적 문제를 상의하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상담이 많아야 교화가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상담의 기본인 정성스런 청취와 내담자의 비밀을 지켜주는 묵중한 입도 필요할 것입니다.

4. 청소년 전담 교무제 시행의 발표 중 교당 연합법회에 대해서 각 교당에서의 미약한 법회보다는 여러교당이 연합하여 분위기와 효과를 높이자는 생각이신데 이것은 1년에 2~3번이면 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개개의 교당이 문을 닫지 않으려면 각각의 자생력을 갖추어서 어린이·학생·청년·일반의 사이클에 끊어짐이 없어야 한다고 볼 때 연합법회의 장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각각의 교당에서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고 행사위주의 연합법회보다는 내실 있는 개교당의 법회위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 교당을 살리기 위한 연합법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은 살림을 합치지만 부자는 살림을 늘려나가지요. 연합법회란 말이 많을수록 가난한 집안의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5. 대학생 교우회 발표 중 교구차원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교구에서 지원도 좋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맡은 교당에서 중점사업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너무나 약한 교당만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교우회에 비중을 약하게 생각하니까 교구에서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우회를 창립할 때 거리가 가까운 교당에서 맡는 것이 장기적으로 서로 간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는 교화교육·자선이 어우러져야하지만 그래도 진리의 소자리로 볼 때 교화가 중요하고, 중점 교화 대상도 어린이·학생·청년(대학생)·일반 중 학생·청년(대학생)이라 생각합니다. 학생·청년은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요, 교화 흡인(연원)력도 쉽고, 금방 교화 발전에 보은 봉공한다는 것입니다. 교우회가 있는 교당은 인사이동시 ‘○○교우회 지도교무’ 라는 겸직발령을 낸다면 인사에 고려가 되고, 그 교우회에 관심과 지원이 더 되어 교화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6. 교단 행정력을 교화에 우선하자에 대하여

먼저 교화우선 행정을 하자는 발표에 적극 적극 적극 동감입니다. 간접교화와 직접교화를 함께 하지만 분명히 직접교화에 우선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현 교단의 인력배치, 예산지출, 각종 정책 및 지원책에 대대적 방향의 개혁적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한 개인도 자기의 관심 따라 사람도 만나고 돈도 쓰고 물건도 사게 되듯이, 현재의 행정의 관심은 직접교화에 대한 심적·인적·물적 투자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교역자들이 기관을 선호하기 보다는 교당을 선호하게끔 과감한 투자 및 개선 지원책이 있어야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단의 발전은 견실하겠지만, 지금 이 상태(유형적·가시적·간접적)의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의 이치에 따라 반드시 쓰러린 아픔이 계속되리라 예상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바로 본말 주종 선후가 무엇인가를 연구하여 교화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 투자가 배가될 때 인과의 이치에 따라 선순환으로 전환될 것을 확신합니다.

교화가 되면 교단의 모든 어려움들(인재, 전무출신 복지, 교단 경제 등)이 가장 쉽고도 근본적으로 해결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과 투자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마음 ---> 사람(인재) ---> 공부 ---> 교화 ---> 사업의 순서인가?

건물, 시설 ---> 사업 ---> 교화 ---> 공부 ---> 사람(인재) ---> 마음의 순서인가?

2030 세대의 코드, 가정

-가족·부부 프로그램 중심으로-

길도훈 | 교무·성주삼동연수원

1. 이 시대의 삶의 현안 그리고 목적

오늘날 세계적으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가정해체, 자살, 마약, 자연환경 등입니다.

과거에는 먹고 사는 일이 시급한 삶의 현안이자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산업문명이 발달되어가면서 그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니, 삶을 공허하게 느끼는 사람이 점차 많아져 갑니다. 갑자기 삶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되짚어본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미 만연된 가치관의 부재는 혼돈으로 나타납니다.

바쁘게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든지, 또는 돈이 많아지는 등 환경이 달라질 때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이런 삶의 혼돈은 결국 자신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까지 어려움으로 몰고 갑니다.

오늘날의 사회문제의 근원은 '가치관의 혼돈'에서 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혼돈을 바로 잡아가야 할 기점은 삶의 출발점이자 사회의 기초가 담긴 '가정'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정은 태교로부터 이어지는 정서를 바탕으로 인성을 키워가는 동시에, 삶에서 필요한 부분을 가족 구성원을 통해 감각과 생활학습을 통해 배워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삶의 자양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삶의 사회화의 가장 기초적 단위이자 정서의 기틀을 잡아가는 곳입니다. 결국, 삶의 뒤안길에 이르러서도 가정의 보금자리로 귀의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사회·국가·세계·우주자연과의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서 개인의 삶과, 우주자연과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삶의 지고한 의미를 담아내야 하는 이상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정과 우주자연의 조화, 그리고 각자 삶의 지고한 의미를 담아내야 하는 일을 종교가 가정문화를 선도하며 이끌어가야 할 이 시대 종교의 가장 큰 현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못 다한 것을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채워주고 키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종교는 진리의 소식을 바탕으로 하여 삶의 가치관과 가정의 틀을 엮어주는 역할과 지침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종교는 가치관과 지침의 역할보다 더 한 발짝 다가가서 진리에 따른 혼을 가정문화에서 실현시켜야 하는 전환기에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과 몇 십 년 전만해도 민주화와 분배균등에 초점을 둔 이슈가 대중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제 삶의 궁극적 의미를 담고 사람들과 더불어 삶의 의미를 키워가는 사회화의 최소단위인 가정을 떠나고서는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풀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교리체계와 교화의 방향이 시대적 요청인 동시에 교화의 중점을 두어야 할 사안이라고 원불교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날 민주화 운동이 심화될 때 원불교에서는 이렇다할 방안과 행동양식이 주어지지 못함으로써 청년교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때를 놓친다면 또 한 번 교화의 어려움에 봉착

할 뿐만 아니라 훗날 긴 아쉬움으로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 삶의 자양분으로서의 가정

가정 문화가 중심이 되어가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의 진행과정

진리에 따른 삶의 궁극적 의미와 가정이 중요하나, 이 시간에는 가정에 대한 주제이므로 가정에 한하여서만 기술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삶의 궁극적 의미 필요하다면 그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에는 먹고 사는 일이 삶의 우선 과제였다면 이제는 개인의 행복에 초점 맞춥니다. 이러한 현상은 십수 년 전부터 이미 선진국에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극도의 개인주의에 의한 행복은 오늘날 심한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임을 망각한 삶은 고립과 고독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고독과 우울증 등으로 자살이란 극단적인 곳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선진국은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가정에서 찾았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매스컴에서는 한국의 대가족 문화가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가족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는 그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않을 것만 같다는 인식이었습니다. 안으로 비판 없이 그저 우리의 전통이 좋다고만 했을 따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 규모 11위라는 것에 걸맞게 선진국에 다다르고 있는 오늘날, 가정해체라는 것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본에서 유행처럼 번지던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결혼하는 사람 가운데 5분의 2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편부모의 자녀들이 이혼 증가율에 걸맞게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결혼 가정은 또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학생들을 보면 결혼가정인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먹는 것을 걱정하던 시대를 넘어서서, 가정 문화가 중심이 되어가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의 진행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의 중심 바탕이 되는 것은 가정에서 자라나며 그 사람의 정서뿐만 아니라 삶의 기틀이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심신의 안식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가정의 속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보편적 가정의 성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지 가능해 봅니다.

남녀 불평등에 기초한 가정에서의 엄부자모는 어머니의 희생만을 지나치게 강조만 하였습니다. 부부간의 대화와 부모 자녀간의 대화, 즉 가족 간의 대화와 활동이 단절된 채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런 삶은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시기에는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가며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쳐 극복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등한 입장에서 함께하는 가운데 인격적인 대우를 바랍니다. 일방적인 가족 구성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가정 해체라는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토록 가정이 삶의 자양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산업 문명이 발달된 현실에서는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삶의 본질적 의미를 높이고자하는 노력이 있어야 개인과 사회가 함께 건강할 것입니다. 그 삶의 본질은 결국에는 행복을 공유하는 삶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3. 가정의 붕괴를 초래한 무지

요즘 가정이 핵가족화 되었고, 대중매체와 컴퓨터 등의 문화 속에 갇혀 지내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보니 여러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한 많습니다. 교육 방식에 있어서도 어려서부터 대학 입시의 학습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마음의 준비와 그에 따른 습관이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떤 사람이 될래?” 라고 물으면, 응당 의사, 변호사, 교수, 과학자, 건축가 등등을 나열합니다. 그럼 ‘그런 직업이 그 사람 됨됨이를 대변하는 것인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가 돈이면 무엇이든지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쯤에는 모두가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직업은 살아가면서 세상을 위해 일하는 하나의 방식이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할 만큼의 경제적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직업을 하나의 인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세상살이의 맛을 알아갈 즈음 그 속에는 어떠한 관념의 허상이 자리했음을 뼈저리게 느끼곤 합니다.

오늘날에도 사회에서 선호하는 직업을 선택하려면 취직의 문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인생을 걸고 학습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어리석음을 반복하여 물려주게 됩니다.

직업은 삶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중요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중요한 삶의 일부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삶의 많은 부분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인생의 뒀안길에서 뒤 물림하듯 후회하게 됩니다. 나의 직업과 더불어 나의 내면적인 삶을 되돌아 볼 줄 아는 즐거움이 행복과 직결되는 만큼 이 시대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면에서 우러나는 행복한 삶에 관심을 가지다보면 그 기초가 가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서 필요한 성향은 가정에서 대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도 건설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준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오늘날 행복한 가정을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준비 없이도 잘 살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도 삶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핵가족화 되었고, 정보화 산업문명에 갇혀있는 가운데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얻지도 못합니다. 이런 시대적 조류 속에서는 그 동안 진리의 훈과 지침을 주던 종교가 생활 속으로 들어와서 진리에 따른 가치관과 행복을 심어주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1. 나의 인격(영성의 진급)은?
2. 내가 생각하는 결혼은?
3. 결혼을 하면 어떤 남편 또는 어떤 아내가 될 것인가?
4. 자녀를 낳으면 어떤 엄마와 아내가 될 것인가?
5. 자녀의 인성은?
6. 자녀의 교육은?
7. 부모와 형제간의 삶의 관계는?
8. 늙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9. 나와 가족들의 행복지수는?
10. 내가 세상에서의 역할은?
11. 영생의 문에서의 나의 삶은?

등등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소중한 행복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으며, 얼마만큼의 준비를 하고, 삶의 하루하루를 맞이하는지 각자가 생활 속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 준비가 없기에 오늘날 가정해체와 자살 등으로 사회가 붕괴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 봅니다. 그것을 종교에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4. 가정 구성을 위한 준비

1) 가정에 대한 것도 어려서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행복한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는 자라나서 결혼 생활을 자연스럽게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또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혹자는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선물은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삶은 가정에서부터 마음과 몸에 배어나듯 배우면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란다고 되 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런 보편적인 가정 문화에 이르지 못한 가정에 대해서는 채워주거나 도와주며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 단체도 좋으나 영성을 일깨우는 순수한 종교가 있다면 그곳에서 충족해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종교에서 삶의 많은 부분을 담당해 주는 것이 좋으나 프로그램으로써 뚜렷하게 풀어야 할 때는 청년기부터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2) 청년기가 되어서는 구체적으로 준비

준비 없는 결혼은 부부간의 파탄과 자녀들에 대한 방치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청년기가 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가장 중요한 시기이자 실질적인 준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각자가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정이 앞으로의 이슈가 되듯이 청년교회(2030세대)의 돌파구도 가정을 준비하는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1) 반려자를 찾고, 좋은 반려자가 되는 연습

내가 살아갈 반려자에 대한 이상상을 나의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정해봅니다. 또한 나는 어떤 반려자가 될지 생각해보며 부족함을 채우고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동안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오면서 다름을 느낄 때,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 갈등은 어떤 통로를 통해 조절할지를 생각하며 공유하는 연습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 행복해 하는 것, 취미, 생활 습성, 부부간 역할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화와 프로그램을 통해 만날 수 있으면 그만큼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부부가 되는 연습.

가) 존재로의 사랑 - 행복을 위한 나의 배려.

나) 성 역할

다) 집안 간 책임감 있는 자녀로서의 역할

(3) 부모가 되는 연습.

가)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나) 자녀에게 필요한 것

- ㄱ.정서(인성교육)-편안함, 대화, 놀이
- ㄴ.학습-독서지도, 학습의 습관, 창작력
- ㄷ.진리적 삶- 종교

- (4) 가정을 공유하는 연습.
 - 가) 부부가 함께 책임지고 참여하는 가정
 - 나) 자녀와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
- (5) 보람을 나누는 삶
 - 가) 공익사업(종교, 자선, 봉사, 교육활동 등)

3) 기존 일반 가정에서의 프로그램

- (1) 부부간의 대화부족에 따른 프로그램.
- (2) 가족 성원 모두가 존귀한 존재감 인식과 프로그램.
- (3) 가족을 가장 기본 단위로 하여 함께하는 프로그램.
- (4) 가족의 사랑이 세계로 이어질 수 있는 인식과 활동프로그램.

5. 원불교의 가정문화.

그 가정 속에는 그 사람의 삶이 농축되듯이 녹아있습니다. 이렇듯 가정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가정을 다스릴 줄 안다면 세상을 다스릴 줄 안다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같이 한다고 봅니다.

세상이 건강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하는데 원불교가 광대무량한 낙원을 추구하는 만큼 교화에서 가정을 떠나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앞에서처럼 이 시대의 이슈는 가정입니다. 원불교는 일원 문화의 가정을 위해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때라고 봅니다.

가정 프로그램은 아직 한국 사회에는 일천하기만 합니다. 일부 잘한다는 프로그램도 들어가 보면 철저하게 준비된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부부짱-부부 프로그램 설립자 전종오 교도 연구) 종교 가운데 가정 프로그램을 잘한다는 가톨릭을 봐도 심화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원불교에도 이렇다할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니 이는 종교가나 사회적으로 가정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한 반증이라 여겨집니다.

어쩌면 한국의 가정 문화의 위기는 준비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늦었을 때가 빠르다는 말로 자위하며 지금부터라도 가정문화에 대해 시급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원불교는 가정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

미국은 청교도의 문화가 가정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아있습니다. 그럼 원불교는 원불교 교도들의 가정 속에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불교의 소중한 문화 가운데 하나를 손꼽으려면 함께 기도하고 저녁에 가족이 모여 묵학과 염불·마음일기 등으로 진리에 따른 마음을 나누는 생활입니다. 그 마음은 다음 날 생활 속에서 녹아나 행복을 실현해갑니다.

전무출신들은 이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과연 가정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그것이 교도들로 이어가도 있는지 반조해보면 이 또한 희유한 일에 불과합니다.

전무출신 가정 가운데 많은 가정은 결손을 이룹니다. 아버지의 긴 빈자리가 그렇게 만듭니다. 생활 종교인 원불교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삼동연수원에는 한 가정이 돌아가는데 저녁 염불 일기에 가정의 아이(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참석합니다. 어른들의 일기 나눔을 아주 좋아합니다. 혹 일이 있어서 못하게 되면 그 시간이 좋으며 아이가 보채기까지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의 달라짐을 바라보는 부모는 고무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가정 속의 대화가 부족한 우리네 현실에서는 수행과 마음일기 나눔의 시간은 아주 보배로운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30세대에 준비가 되어야 가정을 이루었을 때 바로 실현해 갈 수 있습니다. 2030세대에 프로그램을 하며 자신이 행복하고, 이것을 미래의 가족 구성원에게 나눠주려는 마음이 우리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요람에서 무덤까지 진리화된 모습으로

태어나서부터 요람에 이르기까지 이상적인 삶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는 교당과 교단을 위한 것이 아닌 교도의 입각지에서 실질적이고도 다양하게 접근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 태교 프로그램
- (2) 유년기에서의 프로그램
- (3)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프로그램
- (4) 초등학교 고학년에서의 프로그램
- (5) 중학생의 프로그램
- (6) 고등학생에서의 프로그램
- (7) 대학생에서의 프로그램(취직을 한 청년의 프로그램)
- (8)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
- (9) 신혼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 (10)기성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 (11)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 (12)내생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이 아닌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구 또는 지구 단위로 해야 할 것도 있고, 수요가 많은 경우는 교당에서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6. 부부 프로그램 사례

1) 장충교당 부부단

부부별 모임으로 성공 사례를 갖고 있는 장충교당 부부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도 네 가정이 성주 삼동연수원에 모였습니다. 이듬해에 열 가정이 넘었고, 만 2년이 된 지금 그 회원이 서른 가정이 됩니다. 서른 가정이면 보통 한 가족 네 명을 생각하면 120명이 교당에 다니는 교도가 됩니다.

당시에는 그냥 공부하는 모임의 정도이었지 소위 교화단 가운데 하나인 부부단이라고 명칭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부단으로 결성이 되었고 앞으로 이야기를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가정들을 여기에서는 부부단이라 이름 하겠습니다.

부부단의 단장은 현재 경기대 경영학과 교수인 최성호 교도입니다. 이 최고도는 선방에 와서 기연

되었다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장총교당 교도의 네 가정이 처음 모임을 갖고자 3년 전인 원기 78년 초여름에 성주 삼동연수원에 왔습니다.

당시 연수원에서는 식당을 담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다고 하기에 식당을 빌려줄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돈도 그저 주고 싶은 대로 주고 가라고 했습니다. 연수원 경제에 큰 지장이 없다면 이곳은 교화하는 장소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밥은 자신들이 해먹었습니다. 저녁에는 고기와 더불어 술도 한잔 씩 하기도 합니다. 공부를 할 때는 밤늦게까지 하고 아이들은 별도로 부교무님이 봐줍니다.

공부 프로그램에는 선의 방법과 선을 중심으로 하는 교리가 있으나 그 가운데 부부 관계개선 프로그램 하나를 넣어서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공부가 삶 속에서 아주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부부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 대표적인 것이 대화 부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작은 일 하나하나가 쌓여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가 대화인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알려진 것이라 달리 설명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반면 대화를 풀어 갈 수 있는 채널이 우리나라의 가정에서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장총교당 부부단이 연수원에 왔을 때에도 대화의 정도를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진단 차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역시 문제를 발견 할 수 있었으나 그 가운데에서 아주 심각한 부부 문제를 담고 있는 가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평소의 불만이 말 속에 숨겨져 나오기도 하고, 사람과 사물을 보는 시각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지식층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말 속에 그 동안의 불만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칭찬 속에 불만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일상적인 말인 것 같은 데에도 불만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 싶을 때에는 시간의 여유를 두고 문제의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실마리는 그 부부의 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말을 여유 있게 들읍시다. 듣다보면 얘기 여기저기에서 문제의 실마리가 불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라 모두가 서로의 관계에 대해 잘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있고 저 부부의 문제로 인해서 나의 숨겨진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가 있어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 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부부 관계개선 프로그램으로는 「장점 찾기」로 서로의 장점을 30가씩만 적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가정 가운데 세 가정은 장점을 말해주나 몇 가지는 불만이 숨겨져 있었고, 한 가정은 장점이 아닌 단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이때 문제의 초점을 벗어나서 지적한 단점은 아주 심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로만 인식된다고 해도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겠지만, 매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 가정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하게 들읍시다. 삶 속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기 부부들의 빗댄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또한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밤 11시가 넘어도 지친 기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진행자가 읽어내야 할 것은 이야기의 본질과 삶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지요. 서로는 진리의 존귀한 존재이고 서로의 결혼은 소유보다는 존귀한 존재에 대한 행복의 불공에 담겨 있다는 것을 문제에 맞추어서 풀어줍니다.

이때의 결론의 범주는 한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정이 함께 들어야 할 것을 심어줍니다.

문제의 중심에 섰던 가정은 내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두의 문제이고, 이 주제로 많은 사람이 소득을 얻게 간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에 마무리도 그런 관점에서 합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은 이처럼 심화된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가볍고 표면적인 방향에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심화된 방향은 모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공통점을 이룰 때 가능하나, 다양한 관심을 갖고 여러 곳에서 온 사람에게는 가볍게 문제를 던져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훗날, 이 부부는 연수원에 오기 전까지 이혼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 곳에 가서 보니 서로의 이해가 부족했고, 나아가 진리적인 관점에서 보니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서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 싶으면 도반을 통하여 새롭게 바라보곤 한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이 부부단에는 부부 관계개선 프로그램이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그 해 가을이었습니다. 그 네 가족이 일곱 가족으로 발전이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그 때에는 프로그램의 대체적인 구성은 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좀 더 심화된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선, 행선, 무시선, 삶 의 이해 등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부부프로그램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부부로서의 나는 누구인가 아니면 나만의 존귀한 존재인가였습니다. 이 속에서도 자아와 부부로서의 미묘한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부부단에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듬해에 봄에는 인근의 훈련원에서 독서 토론을 한다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읽고 발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해 가을이 되어서 연수원을 찾을 때 어떤 책을 읽었으면 좋겠냐고 하기에 『영혼들의 여행』이란 책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혼자 본다거나 영혼에 대한 이해가 적은 사람들에게는 다소 문제가 따를 수는 있겠지만 진리 인식이 깊은 사람과 함께 공부를 한다면 현실의 삶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부부들은 자기를 한 가족이 여행가는 것보다도 이 연수원에 오는 것처럼 가족 모두 오는 것이 어른이나 아이들 모두가 좋다고 합니다. 이토록 좋은 것은 여행과 더불어 공부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음식은 맛있고 영향가가 있어야 좋아 하듯이 요즘 젊은이들도 재미와 유익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좋아합니다.

지난 해 겨울에는 선과 무시선 그리고 부부 프로그램으로는 「부부가 서로 바라는 것 하나 해주기와 안했으면 하는 것 하나를 안 하기」였습니다. 장총교당은 이 부부들의 활동을 장려하면서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부단이 훈련을 떠나면 어린이회원 담당 교무님이 와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기도 합니다.

2) 장총교당 부부단이 성공하는 집단적인 요인

이 부부단들은 자신들의 모임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또한 자신들을 소위 지식층이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보아도 한국의 최고 명문대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곧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을 밖에서 볼 때도 참으로 건전하고 유익한 만남이라 여깁니다.

또한 리더가 지식층이자 겸손하고, 교법에 대한 신심이 남다르다는 점도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데 큰 매력을 지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자신을 좀더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 집단이 그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 흡입력을 갖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3) 앞으로의 과제

장충교당 부부단은 요즘 한계점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30가정 가운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가정은 15가정에 이릅니다.

최근(원기 90년 5월 8일, 우이동 봉도훈련원) 훈련에는 11가정이 참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야기되기로는 단이 조직되면서 너무 공부 분위기로 치닫다보니 일정을 너무 밀도 있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중의 호응 얻고 이끌어가는 데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을 가다보니 자신들의 영성을 꾸준히 이끌어 줄 지도자를 초빙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열리는 프로그램(부부 관계 개선), 공부(영성 프로그램), 가족이 함께하는 것, 회포를 풀 수 있는 자리 등으로 조화를 이루어 어우러졌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구성되면서 더 잘해보려는 욕심으로 공부에 대한 프로그램이 밀도 있어지고, 밖으로 보여 지는 것도 있다보니 형식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반 현상들이 대중성을 갖고 함께 하는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와서 다음부터는 지정의(知情意) 요소를 적절하게 안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발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체계적인 무시선 프로그램에 의해 자신들의 영성을 지속적으로 일깨우고, 그로 인해서 서로 만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마음을 여는 무시선 프로그램은 2년째 지속되는 프로그램(별지 참조)입니다.

공부를 평소에 자주 갖게 되면 훈련에서는 부부 관계개선 프로그램과 가족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단이 열심히 하려고 하나 한계를 느끼는 것은 다양하고 심화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수평적인 프로그램과 수직적(심화)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평적 프로그램의 예를 들면, 부부 관계개선 프로그램에서 장점 찾기, 발 씻겨주기, 부부가 한 팀이 되어서 게임하기, 등 나열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심화된 프로그램은 한층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해 한 차원 높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나의 매력 포인트를 적을 때 나타난 매력 포인트보다는 그 사람 의식의 방향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수평적 프로그램은 그 수준에 충분하게 동화되도록 이해와 의식의 폭을 넓혀간다면, 수직적(심화) 프로그램은 조금씩 차원을 높여가며 이해와 의식의 깊이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체계적인 수직적 프로그램에 따라 그 단계에 맞는 수평적 프로그램이 다

<p>아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부부 관계개선 프로그램의 발전.-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젊은 지식들의 정신을 삶 속에서 이끌어 줄 수 있는 지도자와 프로그램.-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 배려.

양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총부의 핵심부서에서 프로그램 제작과 더불어 검증을 거쳐서 내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익히며 지도 경험을 지닌 지도자를 꾸준히 배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니다.

7. 맺음말

가정이 살아야 국가, 세계, 인류가 살아납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생각지도 못한 가정 해체라는 충격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국가의 기반을 흔든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위기는 앞으로의 최대 관심사가 ‘가정’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먹고 사는 것이 현안이었던 시대와는 달리, 진리와 맥락을 같이하는 행복의 가치관이 일상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관을 세우지 못하는 이상, 삶에 대한 위기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 행복의 가치관은 가정과 더불어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삶의 시작점인 가정은 또한 사회로 통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가정은 진리를 사회화시키는 첫 관문이기도 합니다.

행복하고 튼실한 가정은 준비가 없이는 이루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준비는 가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면 더욱 좋으나, 모든 가정이 바람직한 현상을 지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 진리의 혼과 행복의 가치관을 불어넣는 종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 위기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대상의 우선순위로는 혼기를 앞둔 20, 30대입니다. 가정을 꾸려갈 준비기로서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효과는 그만큼 극대화되리라 봅니다.

①행복한 부부가 되는 길, ②좋은 부모가 되는 길(태교부터 교육), ③진리와 평화가 숨쉬는 가정의 문화 등등을 사실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청년교화의 모티브를 앞으로는 ‘가정’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교육(교화)의 장이 한 교당에서 어려우면 교구에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또한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 등을 개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단편적으로 「좋은 부모 모임」 「학원비 아끼기 모임」 등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원불교에서는 가정에 관한 코드를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면 더욱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정 교화가 시급한 시점에서 교화연구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봅니다. 단편적인 자리를 넘어서 교단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 체계적인 시스템의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 별 첨 > 행복을 여는 무시선

진공을 체로 삼고

【수행품12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종(禪宗)의 많은 조사가 선(禪)에 대한 천만 방편과 천만 문로를 열어 놓았으나, 한 말로 통합하여 말하자면 망념을 쉬고 진성을 길러서 오직 공적 영지(空寂靈知)가 앞에 나타나게 하자는 것이 선이니, 그러므로 "적적(寂寂)한 가운데 성성(惺惺)함은 옳고 적적한 가운데 무기(無記)는 그르며, 또는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은 옳고 성성한 가운데 망상은 그르다" 하는 말씀이 선의 강령이 되나니라.」

【수행품17장】 양도신(梁道信)이 여쭙기를 「대종사께옵서 평시에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며,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는 그 일에 마음이 편안하고 온전해야 된다 하시므로 저희들도 그와 같이 하기로 노력하옵던 바, 제가 이 즈음에 바느질을 하면서 약을 달이게 되었사온데 온 정신을 바느질 하는 데 두었습다가 약을 태워버린 일이 있사오니, 바느질을 하면서 약을 살피기로 하오면 이 일을 하면서 저 일에 끌리는 바가 될 것이옵고, 바느질만 하고 약을 불고하오면 약을 또 버리게 될 것이

오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공부의 옳은 길이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약을 달이고 바느질을 하게 되었으면 그 두 가지 일이 그 때의 네 책임이니 성심 성의를 다하여 그 책임을 잘 지키는 것이 완전한 일심이요 참다운 공부니, 그 한 가지에만 정신이 뿔혀서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두렵한 일심이 아니라 조각의 마음이며 부주의한 일이라, 그러므로 열 가지 일을 살피나 스무 가지 일을 살피나 자기의 책임 범위에서만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방심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이며, 동할 때 공부의 요긴한 방법이니라. 다만, 내가 아니 생각하여도 될 일을 공연히 생각하고, 내가 안 들어도 좋을 일을 공연히 들으려 하고, 내가 안 보아도 좋을 일을 공연히 보려 하고, 내가 안 간섭하여도 좋을 일을 공연히 간섭하여, 이 일을 할 때에도 정신이 저 일로 가고 저 일을 할 때에는 정신이 이일로 와서 부질없는 망상이 조금도 쉴 사이 없는 것이 비로소 공부인의 크게 꺼릴 바이라, 자기의 책임만 가지고 이 일을 살피고 저 일을 살피는 것은 비록 하루에 백천만 건(件)을 아울러 나간다 할지라도 일심 공부하는 데에는 하등의 방해가 없나니라.」

【수행품58장】 - 마음 나라는 원래 온전하고 평안하여 밝고 깨끗한 것이나, 사욕의 마군을 따라 어둡고 탁해지며 복잡하고 요란해져서 한 없는 세상에 길이 평안할 날이 적으므로, 이와 같은 중생들의 생활하는 모양을 마음 난리라 한 것이요, 병법이라 함은 곧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마군을 항복받는 법이니 그 법은 바로 정(定)과 혜(慧)와 계(戒)를 닦으며, 법(法)과 마(魔)를 구분하는 우리의 수행 길이라, 이것이 곧 더할 수 없는 세계 정란(靖亂)의 큰 병법이니라.-

묘유로 용을 삼는다

무시선

미래계획

가슴이 뛰는 미래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계획을 세운다.

-인격적인 계획(부처의 삶, 평화로운 삶 등)

-자아실현의 계획(일, 직업 등)

-환경적인 계획(의, 식, 주, 문화 등)

지금부터 계획을 행동으로 옮긴다.

장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

단계적인 계획

중요하고 급한 것, 중요한 것, 급한 것,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 등으로 순서를 정한다.

현실에서 존재하기

공적 영지가 이 곳에서 나타나는가

정산종사님은 양산 종사에게 너는 3개월간 자성을 떠나지 않을 수 있냐

1.편안함과 온전함으로

- 단순한 일을 잡아서 평온함(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하며 편안함)으로 한다. 설거지, 청소, 요리, 독서, 좌선, 요가, 주의사항은 나태심과 욕속심이 내재해 있는가 살핀다. 나태심이 있으면 하기 싫어서 대충 끝내고 욕속심이 있으면 일을 해치우게 된다.

2.일상의 느낌에 존재하기

- *문 열고 닫기,
- *인사하기(합장하며 하기
- *신발 신고 벗기
- *목욕하기-자신을 느끼되 지나치면 감각에 지나치기가 쉽다.
- *녹차 마시기

3.잠자는 의식을 깨우기

- *만나는 인연과의 시간과 공간이 모두 소중한.(자연도 포함)
- *내 영혼을 일깨우는 인연

4.멈추어 생각하고 행동하기

멈춤

- * **멈춤** - 경계에 들어서 5분간 멈춘다.
- * **놓기** - 의식을 놓기(충분한 이해가 수반 되어야 한다.)
 - 내 문제를 본다.
 - 우리의 문제를 본다
- * **비우기** - 마음을 비우기(좌선을 통해서)
- *급히 처리할 일이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표준을 두고 한다.(체조와 역도 코치처럼 처리하면 안됨)
- *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바라보기만 하여도 미세 번뇌는 저절로 없어진다.)
- * 본래 마음에 대조하기

돌이켜 반조하기

지난 일에서 배울지언정 집착하지는 않는다.

- 역사와 경험을 통하여 배우고서는 지금부터는 다르게 행동한다.
- 참회를 통하여 묵은 업을 갚아가고 ,
- 낮은 일에는 참회의 기도
- 좋은 일에는 감사의 기도

이참과 사참

【경의편32장】 이참(理懺)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일체를 다 자기 마음이 짓는 것임을 요달하는 것이요 , 둘째는 인과가 우주의 원리인 것을 요달하는 것이요 , 세째는 자성의 원래가 죄업이 돈공한 것을 것을 요달하는 것이요 , 네째는 자성의 공한 것을 관하여 동정간 삼매의 힘을 얻는 것이니라.」

【경의편31장】 사참(事懺)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대원을 발하여 작은 욕심을 끊는 것이요 , 둘째는 사실을 대조하여 선악의 이해를 판단해 보는 것이요 , 세째는 진정

한 마음으로 항상 법신불 전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요, 네째는 일일신 우일신(日日新 又日新)으로 매양 악업을 고치기에 노력하는 것이니라.」

【경의편33장】 참회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사참의 결과는 첫째는 악업이 날로 소멸함이요, 둘째는 선업이 날로 증장함이요, 세째는 세간 복이 계속됨이며, 이참의 결과는 육도 일미의 극락을 수용하게 됨이니라.」

【생사편15장】 이명훈이 병이 중하매 한 송을 주시니, 「舊業日償 來頭淸淨 死生一如 不斷不休 佛緣深重 萬事無憂 永生之寶 信與誓願 理懺事懺 道場淸淨」이라, 번역하면 「묵은 업 갈아 가니, 오는 날 청정하고, 죽고 삶 한결 같아, 언제나 이 일이라, 불연이 심중하니, 모든 일 근심 없고, 영생에 보배될 것, 믿음과 서원이라, 이참하고 사참하니, 도량이 청정이라.」 하심이러라.

행복을 여는 무시선

성명

계획		월	현실에 존재				돌이켜 비춤	비고
서원	보람		평온함	마음 다함	선,행선,주송,기도	경전(독서), 화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삼 동 연 수 원

<지정토론>

2030 세대의 코드, 가정 -가족·부부 프로그램 중심으로-

박 법 일 | 교무 · 원불교대학원대학교

부부, 그리고 가족프로그램중심으로 한 길도훈 교무의 연구는 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부부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여 얻어진 현장 체험적이라는 점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논자가 지적하였듯이 ‘원불교에 이렇다할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 이기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현장적용과정은 원불교의 부부 및 가족프로그램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의 가치와는 별도로,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일반적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예로, 논자는 가정프로그램의 현주소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가정프로그램은 아직 한국사회에는 일천하기만 합니다. 일부 잘한다는 프로그램도 들어가보면 철저하게 준비된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부부짱-부부프로그램설립자 전종오교도연구). 종교가운데 가정 프로그램을 잘한다는 가톨릭을 봐도 심화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힘듭니다(본문 p.8의 중간부분 중에서 발췌).

물론 가정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겠지만,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구자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던 대부분의 프로그램(장점찾기, 장점찾기, 발췌겨주기, 부부가 함께 팀되어 게임하기 등)이 현재 사용되는 부부/가족프로그램에서 그대로 채용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이러한 주관적 판단으로 기존의 프로그램의 수준을 낮춰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접근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양한 유형의 부부 및 가족프로그램이 각 전문영역에서 적용되어 그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예, PREPARE/ENRICH, 가족세우기 등).

또한 연구자는 전무출신 가정에 대해 「전무출신 가정 가운데 많은 가정은 결손을 이룹니다. 아버지의 긴 빈자리가 그렇게 만듭니다(본문 p.9의 중간부분 중에서 발췌).」라 보았습니다. '결손가정'이라는 용어는 부부가 온전히 가정을 꾸리고 있어야 흠이 없는데 둘 중 하나가 빠졌다면 흠이 있다는 의미가 '결손'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용어의 기저에 깔린 편견으로 인해 '편편모가정'이라는 대체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전무출신가정을 전제하고 둔 표현이라 생각되지만, 부모의 존재가 자녀와 함께 나누는 시간의 장단에 있다가 보다는 자녀들이 느끼는 존재감에서 와진다는 전제를 통해 용어사용에 대한 재고를 생각해봅니다. 동시에 예전과는 달리 변화하는 전무출신가정의 형태와 분위기에 대한 연구가 좀더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연구자는 장충교당 부부단의 경우를 성공사례로 제시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장충교당 부부단이 성공하는 집단적인 요인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이 부부단들은 자신들의 모임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또한 자신들을 소위 지식층이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최고명문대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곧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을 밖에서 볼 때도 참으로 건전하고 유익한 만남이라 여깁니다. 또한 리더가 지식층이자 겸손하고 교법에 대한 신심이 남 다르다는 점도 많은 사람을 이끌어 가는데 큰 매력을 지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본문 p.13 중간에서 발췌).

위의 내용에서 보면 부부단의 성공요인을 집단구성원들의 지적수준과 인텔리의식, 그리고 팀 리더의 지적기반과 내면적인 매력과 신심으로 분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부부단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대안적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의 지적수준에 맞는 프로그램개발을 통한 성공방향을 끌어내는 등의 좀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종교계에서 주관하는 부부 및 가족프로그램의 목적을 보면, 그 궁극점은 신앙성 고취를 통한 가족구성원의 영적성장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자체에서 개발되어 시행되는 부부 및 가족 프로그램 또한 ‘이 모임이 곧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밖에서 이들을 볼 때도 참으로 건전하고 유익한 만남이라 여기는’ 그 이상의 도달목표가 필요합니다. 정상의 가족을 이루고 있는 일반가정의 부부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만큼이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가정(ex. 결손가정, 문제를 가진 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교법적인 토대를 가지고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길교무님의 현장에서의 프로그램도입과 시도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보여집니다.

끝으로 연구자는 본문 p.14에서 부부단 프로그램을 수평적인 프로그램과 수직적(심화)프로그램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 수직적 심화프로그램은 조금씩 차원을 높여가며 이해와 의식의 깊이를 가지게 하는 것이라 전제하고, 체계적인 수직적 프로그램에 따라 그 단계에 맞는 수평적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어떻게 조금씩 차원을 높여가며 이해와 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실제 프로그램사례를 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